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0년 02월

석사학위 논문

외상적 유대 수준과 외상
유형에 따른 복합PTSD 증상의 차이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서 유 영

외상적 유대 수준과 외상 유형에 따른 복합PTSD 증상의 차이

Differences in Complex PTSD Symptoms According to Traumatic
Bonding Levels and Trauma Types

2020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서 유 영

외상적 유대 수준과 외상 유형에 따른 복합PTSD 증상의 차이

지도교수 정 승 아

이 논문을 상담심리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서 유 영

서유영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택호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승아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권해수 (인)

2019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I.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II. 이론적 배경	7
A. 복합PTSD	7
1. 복합PTSD의 개념	7
2. 아동학대	10
3. 데이트폭력	12
B. 외상적 유대	16
1. 외상적 유대의 개념	16
2. 외상적 유대와 복합PTSD	18
III. 연구방법	22
A. 연구대상	22
B. 측정도구	23
C. 연구문제	29
D. 자료분석	30
IV. 연구결과	31
A.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31

B. 각 요인별 상관	31
C.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	33
D. 관계 유지 여부에 따른 외상적 유대와 복합PTSD 점수의 차이	34
E. 학대유형 및 외상적 유대 수준에 따른 복합PTSD의 차이	34
F. 학대유형 및 외상적 유대 수준에 따른 복합PTSD 하위요인의 차이	35
V. 결론 및 논의	42
참고문헌	46
부록	56

표 목 차

표 1. DESNOS 진단기준	8
표 2. ICD-11에서 PTSD와 복합PTSD의 증상	10
표 3. 설문참여자의 특성	22
표 4. 아동기 외상 질문지의 문항 구성 및 Cronbach's α ...	24
표 5. 갈등채략척도의 문항구성 및 Cronbach's α	25
표 6. 스톡홀름증후군 척도의 문항 구성 및 Cronbach's α ..	25
표 7. ICD-11 외상 질문지의 문항 구성 및 Cronbach's α ..	26
표 8. 주요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31
표 9. 측정변인들 간 상관	32
표 10.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	33
표 11. 관계 유지 여부에 따른 외상적 유대와 복합PTSD 점수의 차이	34
표 12. 학대유형 및 외상적 유대 수준에 따른 복합PTSD 총점의 차이	34
표 13-1. 학대유형 및 외상적 유대 수준에 따른 재경험의 차이	36
표 13-2. 학대유형 및 외상적 유대 수준에 따른 회피의 차이	36
표 13-3. 학대유형 및 외상적 유대 수준에 따른 위협감의 차이	37
표 13-4. 학대유형 및 외상적 유대 수준에 따른 정서조절	

과활성화의 차이	38
표 13-5. 학대유형 및 외상적 유대 수준에 따른 정서조절 비활성화의 차이	39
표 13-6. 학대유형 및 외상적 유대 수준에 따른 부정적 자기개념의 차이	40
표 13-7. 학대유형 및 외상적 유대 수준에 따른 불안정한 관계의 차이	41

ABSTRACT

Differences in Complex PTSD Symptoms According to Traumatic Bonding Levels and Trauma Types

Seo You Young

Advisor : Prof. Jung Seung Ah, Ph.D.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fferences in complex PTSD symptoms according to traumatic bonding level between individuals who have experienced complex traumatic events. Traumatic bonding are paradoxical symptoms that arise under a complex trauma situation, and understanding traumatic bonding will help to understand the complex trauma symptoms of individuals who have experienced traumatic events.

The research hypothesis established for this purpose are as follows. First, is there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traumatic bonding depending on whether the relationship is maintained or not? Second, is there a difference in the symptoms of complex PTSD depending on the type of trauma? Third, is there any difference in the symptoms of complex PTSD depending on the level of traumatic bonding?

For the purposes of research, the following studies were conducted in this study: The study was conducted by online surveys using Google Form to adult males and females across the country. A total of 539 copies were retrieved, and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211 copies, with 35% of the upper and lower levels of traumatic bonding being set aside from the questionnaires who responded insincerely, and the questionnaires who did not appear to have experienced a child abuse and date violence case. The measuring instrument used in the questionnaire were Korean-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K-CTQ), The Revised Conflict Traction Scale(CTS), Stockholm Syndrome Scale(SSS), and ICD-11 Trauma

Questionnaire(ICD-TQ), Results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5.0 for independent sample T test, and two-way ANOVA.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traumatic bonding has been shown to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relationship is maintained or not. In particular, the traumatic bonding of closed-relations group were higher.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symptoms of complex PTSD according to the type of trauma. Dating violence groups scored the lowest in all factor, followed by child abuse and overlapping groups. Third, There were differences in symptoms of complex PTSD according to the level of traumatic bonding. The higher traumatic bonding group had more severe symptoms, and when viewed through partial eta squares, the traumatic bonding level had a greater impact than the type of trauma.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has empirically studied traumatic ties, a paradoxical symptom that occurs under multiple traumatic events. It also indicated that traumatic ties were associated with more severe symptoms. Accordingly, through this study, we hope to understand the symptoms of victims who experience multiple traumatic events and to be used in various scenes for their mental health.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3년 8월 경북 칠곡군에서 계모가 9세의 딸 ㄹ양을 때려 숨지게 하고, 그 언니 15세 ㄱ양에게 “내가 발로 차서 ㄹ양이 죽었다.”라고 거짓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의 언니는 6개월이 지나서야 진실을 말했고, 피해자의 언니의 거짓진술의 이면에는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가 숨겨져 있었다(경향신문, 2016.08.27). 해당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생겨날 만큼 국민들은 이 사건에 분노했다.

201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위에 언급된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충격적인 사건들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아동기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동에게 이러한 학대 경험은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전문기관에 피해아동의 상담·치료 위탁을 추가하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두텁게 하며,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을 2017년 12월 19일 한 차례 일부 개정하고, 다시 한 번 개정하여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외상사건이라는 특징이 있다(Herman, 1992). Herman(1992)은 이와 같이 반복적이고, 대인관계적 폭력의 성격을 띠는 외상을 경험한 후 겪게 되는 심리적 장애를 이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와 구분하여 복합PTSD(Complex PTSD)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의 주장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복합PTSD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안현의, 2007; 정윤경, 김희진, 2014; Pelcovitz, Van der Kolk, Roth, Mandel, Kaplan, & Resick, 1997). Herman(1992)이 제안한 복합PTSD는 아동학대, 가정 폭력 등과 같이 반복적이고 만성화된 외상 경험으로부터 발생하고, 정서조절곤란, 자기-파괴적 또는 충동적인 행동들, 대인관계 문제와 같이 경계선 성격장애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경향과 반복되는 우울, 해리, 신체화 증상 또한 이에 포함된다(Taylor, Asmundson, & Carleton, 2006).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18년 ICD-11으로 개정하면서, 비슷한 두 장애인 PTSD와 복합PTSD의 분리에 집중하였다. 이 두 장애의 구분은 복합PTSD는 PTSD에 더해 정서 조절곤란, 부정적인 자기개념, 관계의 어려움을 요구한다(Maercker et al., 2013). 또한 WHO는 복합PTSD는 전형적으로 만성적인 외상적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더 만연하는 심리적 고통(psychological distress)이라고 묘사했다. 이와 같이 복합PTSD는 기존의 PTSD 증상뿐만 아니라 성격적인 변화를 수반하여 개인에게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안현의, 장진이, 조하나, 2009). Herman(1992)은 인간이 심리적 외상에 적응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까지 변화시킨다고 하면서 ‘자기(self)’의 변화에 주목하였고, 이후 복합PTSD 연구자들 또한 복합PTSD로 인한 후유증을 자기조절 장애나 자기체계손상이라고 주장한다(Fonagy, Gergely, Jurist, & Target, 2002; Harter, 1999; Luxenberg, Spinazzola, & van der Kolk, 2001). 자기체계 손상의 측면에서 학대 받은 아동은 부모의 강한 거부감과 냉대를 내면화하여 자기혐오, 자기멸시, 자기증오를 발전시킨다. 스스로를 당연히 학대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하고 좀 더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을 철저히 통제한다. 이 결과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과 타인의 욕구와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또한 손상되어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이문희, 이수림, 2013).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은 대인관계에 필수적인 요소로 이러한 능력의 결함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그 결과 PTSD의 보호요인 중 하나로 알려진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된다(Knetig, 2012).

한편,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복합외상으로 아동학대와 함께 포함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가정폭력을 들 수 있는데, 이와 비슷한 현상으로 데이트 폭력이 있다. 데이트 폭력은 결혼을 하지 않은 연인사이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부부사이의 폭력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신소라, 2018). 데이트 폭력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결혼 전 교제하는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로 이해된다(유선영, 2000; 이영숙, 1998). 다시 말해, 결혼 전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채 행하는 모든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결혼 전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관심은 Makepeace(1981)의 연구 발표 전까지 일반인은 물론 학자들에게서도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그 이후 사회적으로도 문제인식을 갖게 되었다(서경현, 2011). 국내의 경우도 200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된 결과 미국과 데이트 폭력의 빈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서경현, 2011), 끔찍한 사건들이 언론에 빈번히 노출되면서 대중들의 관심 또한 높아졌다. 그 결과 2016년 경찰청은 ‘연

인 간 폭력(데이트 폭력) 근절 TF'를 구성하였다(시사오늘, 2016.02.02).

하지만 한국여성의전화(2016)에서 수행한 2016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1,017명의 여성 응답자중 61.6%가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피해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해 사실을 피해로 인식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특히 경찰이나 상담센터 등 공적인 기관에 의뢰한 경우는 각각 약 6%, 11%를 보인 점을 미루어보아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신고 되지 않은 사례는 무수히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이 폭력 피해 후 아무런 조치도 않은 피해자들은 또 다시 피해의 희생자가 될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Walker(1979; 1983)은 피해자가 무기력과 의존성을 학습하면서 그러한 폭력적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폭력의 굴레(cycle of violence)'라고 설명하면서 이들은 폭력을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폭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질적연구로 수행된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우현진, 장숙희와 권호인(2017)의 질적연구에서 중심현상은 '폭력의 올라미에 갇힘'으로 참여자들은 폭력을 경험한 후에도 가해자에게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적인 폭력을 경험했다. 박경은과 유영권(2017)의 질적연구에서 중심현상은 '비정상적인 사랑'으로 이를 강하게 느낀 참여자들은 죄책감을 느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관계를 지속시켜 갔다. 이와 같은 반응들은 데이트폭력이 반복되게 하고, 그 결과 복합PTSD의 조건인 반복적이고 대인관계적인 성격을 만족시키게 한다.

한편, 안현의 등(2009)은 성격이 형성된 성인의 경우에도 복합PTSD 증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 소수의 연구에서 성인기의 복합외상경험이 복합PTSD에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Dorahy, Corry, Shannon, & MacSherry, 2009), 하지만 Cloitre 등(2009)의 연구에서는 아동기 복합외상경험과 성인기 복합외상경험 중 전자의 경우가 복합PTSD의 증상이 더 복잡했고, Pelcovitz 등(1997)의 연구에서도 복합외상을 더 어린 나이에 경험할수록 더 심각한 증상을 보였다. 이들 중 신뢰, 소화기 증상, 무망감 등 몇 개의 하위요인을 제외하고는 그 차이가 매우 컸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아동기 학대가 데이트폭력 경험에 집단에 비해 모든 면에서 더 심각한 증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Cloitre 등(2009)의 연구에서 가장 복합적이고 심각한 증상을 보인 것은 아동기와 성인기 모두 복합외상을 경험한 집단이었고, 피해횟수가 많을수록 더 심각한 증상을 보였다. 국내 다른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아동학대 피해경험은 성인기의 데이트 폭력 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박정은, 2017; 유선

영, 2000; 최윤경, 송원영, 2014), 복합외상의 중첩이 심리적 증상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정지선, 2008)를 고려하였을 때, 중복집단은 아동학대만 경험한 집단이나 데이트 폭력만 경험한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심각한 증상을 보일 것이고, 아동학대만 경험한 집단은 데이트폭력만 경험한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심각한 증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학대와 가정폭력을 멈출 수 없는 아동 및 폭력 피해자들은 생존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Jülich, 2005). 이러한 생존 방법 중 하나로 피해자들이 외상 관계에서 맺는 역설적인 유대감이 있다. Dutton과 Painter(1981)는 희생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렬한 유대감을 연구하며, 이러한 패턴을 “외상적 유대(trumatic bonding)”라고 이름 붙였다. 이들은 이러한 관계가 포로와 인질, 폭행범과 배우자, 또는 학대하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포함하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관계는 힘의 불균형과 간헐적인 학대로 인해 발생한다고 하였다. 사실 이러한 유대감은 1973년 스톡홀름의 한 은행에서 6일 동안 인질로 잡혀있던 세 명의 여성과 한 남자가 오히려 본인을 인질로 잡았던 가해자를 두둔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인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에서부터 관찰할 수 있었다. Graham, Rawlings와 Rimini(1988)는 인질 상황에서 희생자들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때 맞는 여성(battered woman)들의 심리적 메커니즘과 비교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관찰되는 정서적 유대는 사건의 원인이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생존 전략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스톡홀름 증후군의 발달에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4가지 조건으로 피해자가 인식한 생존에 대한 위협, 회피 불가능, 고립, 가해자의 약간의 친절함이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들은 가해자를 두둔하고, 오히려 죄책감을 내면화하기도 한다(Graham et al., 1995) 제시된 4가지 조건은 Dutton과 Painter(1981)가 외상적 유대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힘의 불균형과 간헐적인 학대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은 이 두 가지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한편, 위에 언급한 대로 외상적 유대는 학대를 당하는 피해자와 학대를 행하는 가해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며(Dutton & Painter, 1981), 외상적 유대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대부분 아동학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성매매 등의 상황을 연구했다(Dutton & Painter, 1993; Graham et al., 1995; Jülich, 2005; Sanchez, Speck, & Patrician, 2019). 이와 같은 사건은 위에 설명한대로 복합외상의 전형적인 사건으로써

외상적 유대가 복합외상사건 하에 나타날 수 있는 역설적인 증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외상적 유대와 심리적 증상의 관계를 연구한 소수의 연구에서 친밀한 관계의 폭력과 우울, 불안 등 심리적 고통(psychological distress)의 관계에서 외상적 유대의 하위요인 중 핵심요인은 그 관계를 매개하지 않았고(Ahmad, Aziz, Anjum, & Mir, 2018), 오히려 외상적 유대가 PTSD증상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Demarest, 2009). 이 같은 결과는 이전에 외상적 유대 대해 언급한 연구자들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다. 이에 대한 이유를 추론해보자면 Speckhard, Tarabrina, Krasnov와 Mufel (2005)은 외상적 유대가 외상 중 해리(peritraumatic dissociation)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상 중 해리는 외상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 개인을 보호한다(Lensvelt-Mulders et al., 2008). 하지만 그 효과는 외상 중 혹은 외상 직후에 한정되며 오히려 미래의 PTSD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요인이다(Griffin, Resick, & Mechanic, 1997; Marx, Sloan, 2005; Schnurr, Lunney, & Sengupta, 2004). 이와 관련하여 Speckhard 등(2005)은 다양한 질적연구의 예시를 제시하며 외상적 유대가 외상 사건 중에는 외상 중 해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미래의 영향에 대해 검증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아마도 외상적 유대를 경험한 사람이 미래에 사건을 재평가하게 되면 심리적 고통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 같은 제안을 고려해보았을 때, 외상적 유대가 높은 집단이 더 많은 고통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외상적 유대를 겪는 개인은 생존 전략으로 가해자를 이상화하고 자신이 죄책감을 내면화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합리화한다(Graham et al., 1995). 이와 같은 방식은 피해자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가진 특성인 자기비난, 합리화 등의 특징으로 인해 처음에는 고통을 느끼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자기 비난과 더불어 주변 사람들로 부터 적절한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 특히 Graham 등(1995)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들 스스로도 이 관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그 상황을 깨어낼 수 없으므로 피해자 스스로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는 현재 자신의 상황과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상적인 관계에 대한 생각 간의 간극은 피해자를 더욱 고통 받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외상적 유대가 높은 집단은 복합PTSD에서 더 심각한 증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Graham 등(1988)은 외상적 유대가 관계의 종결과 함께 끝나는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외상적 유대를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대로 외상적 유대가 개인에게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변인이라면 학대를 받았음에도 아직 가족과 함께 살고 있거나, 데이트폭력을 당했음에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은 외상적 유대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외상적 유대가 높은 사람은 현 상황을 축소보고하거나 부인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개입이 힘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관계의 종결에 따른 외상적 유대가 차이가 보인다면 적절한 시기에 개입하고 중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erman(1992)이 복합PTSD를 전개한 이후로 복합PTSD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지만 외상적 유대가 복합PTSD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과 동일한 상황에서 나타나고, 그 양상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역설적인 양상임에도 불구하고 외상적 유대와 복합PTSD를 함께 보는 연구는 거의 없다. 외상적 유대를 나타내는 사람은 분명히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Julich, 2005).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외상적 유대의 발현이 복합PTSD 증상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외상적 유대의 수준에 따른 복합PTSD 증상의 하위요인의 차이를 보고자 한다. 복합PTSD가 여러 가지 증상들의 혼합임을 생각해보았을 때 각 하위요인의 차이를 보는 것이 외상적 유대와 복합PTSD에 대한 이해를 더욱 도울 것이라 생각된다.

II. 이론적 배경

A. 복합PTSD

1. 복합PTSD의 개념

외상이란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 혹은 성폭력에의 노출을 직접 경험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되었거나, 직업에서 혐오스러운 세부사항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정의 내려진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이와 같은 외상 사건을 경험한 개인에게 침투적 사고, 외상 관련 자극 회피,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 각성과 반응성의 현저한 변화 등의 증상을 가진 PTSD가 나타날 수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PTSD는 1860년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병사들이 심장 증상을 많이 호소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베트남 전쟁을 통해 현대적인 PTSD의 개념이 정립되는 등 전쟁을 통해 개념의 발전이 이루어졌다(우정희, 2012).

한편, 어떠한 외상 사건은 반복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인간의 적응상태에 만성적인 영향력을 가한다(최현정, 2015). 이러한 현상은 특히 아동학대, 가정폭력의 생존자들 사이에서 자주 보고되고 있다. 처음에는 외상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으나, 반복적이고 대인적 폭력의 성격을 띤 외상 사건들에서는 그 결과가 일치하는 특징이 있어 오랫동안 임상가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안현의, 2007). 이와 같은 외상 경험 후 나타나는 PTSD증상이 기존의 PTSD증상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같은 유형의 외상을 부르는 다양한 명칭이 제시되었다. Terr(1992)는 외상의 유형을 일회적 외상(Type I)과 반복적 외상(Type II)로 구분하면서 일회적 외상은 자연재해, 폭력적 범죄, 관계상실 등을 예로 들었고, 반복적 외상은 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반복적인 학대와 같은 상황 또는 강제 수용소 등의 상황을 예로 들었다. 또한 Herman(1992)은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외상사건 중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사람에게 의해 행해진 외상 사건의 경우 다른 외상 사건과 달리 성격의 변화 등 증상의 차이를 나타내므로 이전의 PTSD와 다르게 복합 PTSD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Herman(1992)의 주장 이후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Van der Kolk, Roth, Pelcovitz, Sunday와 Spinazzola(2005)는 PTSD Field Trial이 외상 경험이 있으면서 치료를 받기 위해 전문기관을 찾은 400명의 환자들과 128명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외상 후 심리적 증상들을 조사한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복합외상을 경험한 연령이 낮을수록 외상 후 증상들이 더 심각했다. 또한 이들 대부분이 PTSD 증상도 가지고 있었고, 첫 외상 경험의 연령이 낮을수록 더 심한 증상을 보였으며, 외상의 지속시간이 길수록 PTSD와 복합 PTSD가 동시에 발병할 가능성이 더 많았다고 보고했다(안현의, 2007). 또한 Cloitre 등(2009)은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린 시절에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여러 번 외상에 노출되면 PTSD 증상뿐만 아니라 불안 각성, 분노관리, 해리증상 및 공격성 또는 사회적 회피행동과 같은 정서와 대인관계에서 자기조절 능력의 장애를 주로 반영하는 복잡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외에도 Pelcovitz 등(1997)은 복합외상에 노출된 사람들의 증상을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극단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장애(Disorder of Extreme Stress Not Otheriwse Specified; DESNOS)”로 표현할 것을 제안하면서 위에 설명된 증상 특징 외에도 자기 파괴적 또는 자살행위, 충동성, 기억 문제, 신체화증상 등과 자기 인식의 변화 등 만성적 성격 특성의 변화, 절망과 무망감 등의 의미체계 변화 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Pelcovitz 등(1997)이 제시한 DESNOS는 복합PTSD와 같은 개념이다. DESNOS의 진단기준을 정리하자면 다음의 <표 1> 같다(Luxenberg et al., 2001).

<표 1> DESNOS 진단기준

- | | |
|---|-------------------------------------|
| 1. 정서 및 충동조절의 변화(A 그리고 B-F 중 1개가 요구된다.) | |
| • 정서 조절 | • 자살 사고에 집착(Suicidal Preoccupation) |
| • 분노 조절 | • 성적 충동이나 행동 조절의 어려움 |
| • 자기-파괴 | • 과도한 위험감수 |
| 2. 주의력 또는 의식의 변화(A 또는 B가 요구된다.) | |
| • 기억상실 | • 일시적인 해리와 이인증 |
| 3. 자기 지각의 변화(A-F 중 2개가 요구된다.) | |
| • 무력감 | • 수치심 |
| • 자신이 영구적으로 손상된 느낌 | •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느낌. |
| • 죄책감과 책임감 | • 자기 경시 |
| 4. 다른 사람들과 관계 변화(A-C 중 1개가 요구된다.) | |
| •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 | • 다른 사람에게 가해 행위를 함 |
| • 재희생됨(Revictimization) | |

5. 신체화(A-E 중 2개가 요구된다.)

- 소화기관
- 만성통증
- 심장과 폐의 증상
- 전환 증상
- 성적 증상

6. 의미 체계의 변화(A 또는 B가 요구된다.)

- 절망과 무망감
- 이전에 지속되었던 믿음의 상실

이와 같은 복합PTSD는 PTSD와 연속선상 위에 존재하며, 양 끝에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복합PTSD가 있고, PTSD는 그 사이에 존재한다(Herman, 1992). 외상의 결과로 인한 반응이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생각할 때 복합PTSD와 PTSD는 이질적인 집단이 아닌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진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정지선, 2008).

한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외상에 기초한 이 비슷한 두 장애의 구분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고,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 ICD) 11판에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장애’라는 일반적인 상위 범주 아래 PTSD와 복합PTSD를 포함시키면서 복합PTSD를 PTSD와 관련되어 있지만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Karatzias et al., 2019). 비록 DESNOS는 DSM-IV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ICD-11에서 제안된 증상 기준은 DSM-IV field trial에서 얻은 데이터를 사용했다(Power et al., 2017). 즉 ICD-11은 DESNOS의 복잡한 개념을 조금 더 간명하게 구분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진단적으로 더 확실하게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ICD-11에서는 두 비슷한 장애의 구분으로 복합PTSD에 PTSD증상에 더해 정서조절 곤란, 부정적인 자기개념, 관계의 어려움을 요구했다(Maercker et al., 2013). WHO ICD-11 작업 집단은 PTSD의 진단을 3가지 중심 요소에 다시 포커스를 맞추는 것과, 다른 장애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특정적이지 않은 진단을 삭제하기를 추천하였다(Maercker et al., 2013). 또한 복합PTSD는 전형적으로 만성적인 외상적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더 만연하는 심리적 고통(psychological distress)이라고 묘사했다. ICD-11에서 설명하는 복합PTSD는 두려움과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이 외상 관련 자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PTSD 증상과 달리 정서, 자기 개념 및 관계에서의 장애는 만연되어 있고,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와 같은 복합PTSD는 외상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특정적인 것이 없고, 개인에게 심각한 고통과 기능적 장애를 유발한다(Powers et al., 2017).

ICD-11에서 PTSD와 복합PTSD의 증상은 다음의 <표 2>과 같다(Cloitre, Garvert,

Weiss, Carlson, & Bryant, 2014).

<표 2> ICD-11에서 PTSD와 복합PTSD의 증상

PTSD	복합PT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경험(Re-experiencing) 플래시백 악몽 • 회피(Avoidance) 생각(Thoughts) 사람, 장소, 활동 • 위협감(Sense of threat) 과경계(Hypervigilance) 깜짝 놀람 반응(Start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경험(Re-experiencing) 플래시백 악몽 • 회피(Avoidance) 생각(Thoughts) 사람, 장소, 활동 • 위협감(Sense of threat) 과경계(Hypervigilance) 깜짝 놀람 반응(Startle) •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 분노(Anger) 마음이 아픔(Hurt feeling) • 부정적 자기개념(Negative self-concept) 무가치감 죄책감 • 대인관계 문제(Interpersonal problems) 친밀한 관계가 없음(Not close) 단절된 느낌(Feel disconnected)

2. 아동학대

201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국내에서 아이돌보미 폭행 사건 등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가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아동기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동에게 이러한 학대 경험은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전문기관에 피해아동의 상담·치료 위탁을 추가하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두텁게 하며,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을 2017년 12월 19일 한 차례 일

부 개정하고, 다시 한 번 개정하여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의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아동학대 신고접수건수는 총 34,169건이었으며 이중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건은 총 22,367건이었다. 학대 유형으로는 중복학대가 48.6%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정서학대 21.1%, 신체학대 14.7%, 방임 12.5%, 성학대 3.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80.9%가 원가정으로 복귀했고, 분리보호 조치된 18.7% 중 4명 중 1명은 1년을 전후해 원가정으로 복귀했다. 또한 원가족으로 복귀한 아동들은 재학대 당할 확률이 높다. 실제로 2017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9.7%인 2,160건이 재학대였고, 그 중 2,053건은 부모가 가해자였으며 발생장소도 가정이 2,055건으로 압도적이었다(한국일보, 2019.01.28). 이와 같은 통계의 결과들은 Allen(2013)이 주장대로 아동학대가 장기간 지속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으로 이러한 장기적인 아동학대는 아동의 발달 및 적응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김수정과 정익중(2013)이 한국복지패널 설문을 바탕으로 한 학대의 중단적 양상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에 첫 학대 경험이 청소년기에 첫 학대 경험을 한 경우보다 우울과 공격성에서 유의한 상승을 보였고, 청소년기로 갈수록 최신 학대의 영향은 줄어들지만 지속적인 학대는 계속 영향을 끼쳤다. 또한 윤혜미(2017)의 아동학대 메타 연구를 살펴보면, 학대의 하위변인들 모두 불안, 우울, 위축에 대하여 영향을 미쳤고 또한 외현화 행동인 공격성, 문제행동, 비행에 대해서도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해당연구에서 정서적 학대는 내현화·외현화 행동 모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비하, 욕설, 냉담, 무시, 감금 등의 정서적 학대가 방임에 비해서는 비교적 적극적이고 일상적인 행위로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피해가 누적되어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학대는 피해자인 아동이 학대 상황에서 적절히 행동할 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이루어질 확률이 높고 실제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의 2017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서도 학대행위자의 특성 중 가장 높은 비율인 22.2%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학대를 행하는 행위자마저도 그 행동을 학대로 인식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 학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장기간 노출될 수 있는 아동학대의 특성상 온전한 애착을 맺지 못해 이후 성인기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ok, Blausten, Spinazzola, & van der Kolk, 2005). 특히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정서에 대해 학습하는 아동기에 나타나는 아동학대는 정서적 고통을 관리하고 조절하는데 지장을 주고

(Fonagy & Target, 1997), 이 때문에 아동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구분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Beeghly & Cicchetti, 1996). 이러한 점들은 관계에 있어 중요한 능력으로 이 같은 능력들의 손상은 피해자들이 관계를 맺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아동기의 학대경험으로 인해 나타나는 자기개념의 변화는 이들 스스로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게 한다(Herman, 1992).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고 비난, 학대, 거절감 등을 받은 아동은 그것을 내면화하면서 자기비난은 더욱 심해지고, 깊은 자기 혐오감, 심한 경우 자기멸시, 자기증오를 형성시킨다(이문희, 이수림, 2013). 이러한 정서와 자기감에 대한 손상으로 아동은 정신화(mentalization) 능력에 손상을 입는다(이문희, 이수림, 2013). 정신화는 개인이 자신의 느낌, 소망, 욕구, 신념 등을 기초로 하여 자신과 타인의 행동에 의미를 두어 해석하는 정신활동으로 자신과 타인의 마음에 집중하고 이해하는 것인데(이수림, 이문희, 2018), 이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은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이다(Allen & Fonagy, 2006). 이러한 능력의 손상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PTSD의 보호요인으로 알려진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된다(Knetig, 2012). 이에 더해 자신의 경계를 정하고 타당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타인에게 쉽게 이용당하거나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 부적절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재희생(revictimization)될 가능성이 높아진다(Briere & Elliott, 1994).

아동학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동기 외상은 성인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기 외상은 정서지능, 경험회피, 자기체계 손상 모두 영향을 미쳤으며(신은정, 김정민, 윤정미, 2018), 자기개념, 낮은 자기효능감(최은영, 안현의, 2011), 이성교제 및 결혼생활 만족도, 거절민감성, 관계중독(최가연, 2018), 대인관계 철회(박선미, 2017), 우울, 불안, 공격성(김수정, 정익중, 2013; 윤혜미, 2017), 신체증상(정나희, 2012), 경계선 성격(윤소리, 김정민, 서유진, 2017)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증상들은 대부분 복합PTSD에 포함될 수 있는 증상들로서 아동학대가 성인의 복합PTSD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연구들(Cloitre et al., 2009; van der Kolk et al., 2005)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3.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에 통일된 정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부사이가 아닌 남녀 간에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폭행·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을 행하는 행동’으로 정의하

고 있는 경찰청의 실무상 정의를 대부분 따르고 있다(신소라, 2018). 다시 말해, 결혼 전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에 서로 간에 다양한 영역에서 해를 입히는 행동들이라 말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Straus, Hamby, Boney-McCoy와 Sugarman(1996)은 이성 관계에서 폭력의 유형을 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 신체적 폭력으로 구분하였다. 심리적 폭력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언어적 폭력을 포함하고, 신체적 폭력은 상대방을 해치기 위해 위협 혹은 협박하거나 힘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의도를 가지고 상대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것이며, 성적 폭력은 원치 않는 상대에게 강압적으로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강효진, 박기환, 2013). 이영숙(1998)은 결혼 경험이 없는 남녀가 결혼하기 전 교제기간 동안 상대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행한 언어적·신체적 행위라고 하였고, 유선영(2000)은 결혼 경험이 없는 남녀가 낭만적인 남녀 간의 관계에서 상대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행한 신체적·정서적 행위로 정의하였다.

한편, 앞서 언급한대로 한국여성의전화(2016)가 발표한 2016 데이트폭력 실태조사에서 설문에 응답한 여성 중 61.6%가 데이트 폭력피해 경험이 있었으며, 모든 유형의 피해를 경험한 비율도 11.5%에 달했다. 또한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2017)의 2017 데이트폭력 피해 및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1500명의 설문대상자중 데이트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683명으로 응답자 1316명 중 51.9%에 달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후 조치를 취한 비율은 20대 47%, 30대 39%로 나타나 오히려 조치를 취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았고, 조치를 취한 사람 중에서도 관계를 종결하는 비율보다는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조치를 취한 사람 중 34.7%,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 중 47.9%가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이들 중 데이트폭력이 유지된 경우는 각각 63.6%, 50.9%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내의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경험을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타인에게 최대한 알리지 않는다는 점(김정란, 1999)을 들 수 있다. 이는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이유는 국내의 사회적 인식이 친밀한 관계의 폭력에 대해 관대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 때문일 것이다(이정은, 현명호, 유제민, 2007). 이로 인해 피해자는 주변인에게 알리지 못하고, 문제 해결에 대해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폭력적 관계에 머무르며 그 관계에 대해 합리화한다(이정은 등, 2007). 그 합리화 과정에서 ‘이타적 망상’이라는 믿음이 등장하는데, 이 믿음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자신이 폭력적인 상대방을 바꿀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말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적지 않은 수가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정은 등, 2007). 이처

럼 데이트폭력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이후에도 높은 비율로 관계가 유지되고, 피해자들은 폭력 피해를 다시 한 번 경험하는 등 데이트폭력의 양상을 봤을 때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데이트폭력 또한 복합외상 사건에 포함될 수 있다(Hyland et al., 2017).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정란과 김경신(1999)의 연구에서 심리적 폭력을 포함하면 90%가 넘는 대학생들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다고 하였고, 우현진 등(2017)은 많은 선행연구들의 결과 이성 교제를 경험한 3명 중 1명 이상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박미랑(2009)의 연구결과 전체 1,399명의 응답자중 12%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고, 33%는 심리적 폭력을 경험하였다. 이에 더해 서경현(2011) 또한 여러 연구 결과 대략 30% 정도는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그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데이트폭력이 드물게 발생하는 사건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Henton, Cate, Koval, Lloyd와 Christopher(1983)은 데이트폭력은 매 맞는 여성(battered woman)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가정폭력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하였으며, 김재엽과 이서원(2005)은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이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한 명의 동일한 대상으로부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력 당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보았다(강효진, 박기환, 2013). 신소라(2018) 또한 데이트 폭력은 결혼 하지 않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부부 간의 폭력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데이트 폭력이 유지되는 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보면, Walker(1983)는 매 맞는 여성 증후군(battered woman syndrome)이라는 개념을 전개하면서 피해여성이 4단계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본인의 관계에 문제가 없음을 부인(denial)하는 단계로 이들은 폭력을 우발적 사건으로 인식하여 상대의 폭력을 정당화시켜주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두 번째 단계는 상대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지만, 원인을 자신에게 돌려 자신을 비난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피해 여성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폭력이 발생했다고 여긴다. 세 번째는 누구도 폭력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할 때 나타나는 깨달음(enlightenment)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폭력의 심각성을 깨닫지만, 관계를 지속하며 상대방을 변화시킬 방법을 모색한다. 마지막 단계는 상대방의 폭력은 오직 상대방 스스로만 조절할 수 있음을 깨닫는 책임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피해 여성은 관계를 종결시킬 것인지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들은 서론에 언급한 폭력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

하고, 지속적인 폭력 피해를 받는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매 맞는 아내는 낮은 자존감, 가해자에 대한 역설적 애착을 보였으며(Dutton & Painter, 1993), 우울, 불안, 지속적인 두통, 복통(Follingstad, Brennan, Hause, Polek, & Rutledge, 1991) 등을 보였으며, 데이트폭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물질남용, 건강하지 않은 체중 조절, 성적 위험 행동, 자살시도(Silverman, Raj, Mucci, & Hathaway, 2001), 낮은 자아존중감, 자해(Carmen, Rieker, & Mills, 1984), 우울, 불안, 공포(이정화, 2007) 등의 후유증이 나타났다. 이러한 증상들은 복합PTSD에 포함될 수 있는 증상들로서, 데이트폭력 또한 반복적이고 대인관계적인 성격을 지닌 복합외상 사건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같은 복합외상사건이지만 성격이 완성되지 않은 아동기에 비해 성인기에 경험한 복합외상사건은 **그 증상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Cloitre 등(2009)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기에 복합외상을 경험한 집단은 아동기에 복합외상을 경험한 집단에 비해 증상의 복잡성이 더 적었다. 또한 최초 경험한 연령이 낮을수록 증상이 더 심각하거나 발병률이 높아졌다(이지민, 홍창희, 2008; Pelcovitz et al., 1997). Pelcovitz 등(1997)의 연구에서 처음 경험한 연령에 관계없이 복합외상경험은 단순외상에 비해 복합PTSD 증상에서 모두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앞서 언급한대로 복합PTSD가 PTSD의 증상을 포함하고 있고, 장기간의 고통을 유발하는 자기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복합외상경험의 심각성에 대해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더해 13세 이전의 이른 나이에 경험한 복합외상경험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모든 부분에서 더 심각한 증상을 보였다(Pelcovitz et al., 2009). 복합PTSD는 자기체계에서의 손상을 포함하는 것으로(안현의, 2009), 특히 자기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들의 경우 전술한대로 더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데이트폭력만 경험한 집단은 아동기에 학대를 받은 집단에 비해 복합PTSD 특유의 증상, 즉 자기개념의 손상에서 덜 심각한 증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PTSD의 경우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인생의 어떠한 시기에 겪더라도 나타날 수 있지만, 복합PTSD의 경우 아동기의 특징을 생각했을 때 아동기 학대를 경험한 집단이 더 심각한 증상을 나타낼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아동기 학대를 경험한 후 데이트폭력까지 경험한 집단은 더욱 자기에 위협을 받을 것이고 따라서 가장 심각한 증상을 보일 것이라 예상된다.

한편, 아동학대의 부정적 결과 중 하나로 재희생(revictimization)이 있다. 실제 아동학대가 데이트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다(박정은, 2017; 유선영, 2000; 최윤경, 송원영, 2014). 위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보아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이후 데이

트폭력 피해를 경험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에 간략히 기술한 정신화 능력의 결함으로 인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아동학대를 경험한 피해자들이 데이트 폭력 피해를 경험하게 되면 그들은 더 오랜 기간, 그리고 더 자주 외상 사건에 노출됨으로써 더 부정적인 예후를 나타낼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Cloitre 등(2009)의 연구에서도 아동기와 성인기에 복합외상사건을 경험한 집단이 가장 복잡한 증상을 보였다.

B. 외상적 유대

1. 외상적 유대의 개념

Dutton과 Painter(1981)는 희생자와 가해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강렬한 유대감을 보이는 외상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조사했다. 이들은 이 패턴을 “외상적 유대(trauamatic bonding)”라고 이름 붙이면서 포로와 인질, 폭행범과 배우자, 또는 학대하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포함하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관계 내에서의 힘의 불균형과 간헐적인 학대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Dutton & Painter, 1993).

Hopper(2017)는 외상적 유대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때리고, 위협하고, 학대하거나, 협박하는 두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강한 정서적 유대라고 정의했다. de Young과 Lowry(1992)는 가족 내 근친상간에서 비밀유지의 압력, 아동의 정서적 그루밍(emotional grooming) 그리고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성장한 아이의 애착행동은 아이가 근친상간을 당했다고 밝히는 것을 방지하는 유대감을 만든다고 하면서, 가정 폭력 및 인질 상황에서도 강렬한 정서적 유대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한편,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은 Bejerot(1974)에 의해 이름 붙여졌다. 그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한 은행의 금고에서 6일 동안 인질로 잡혀있던 세 명의 여성과 한 남자의 수수께끼 같은 행동을 묘사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했다(Bejerot, 1974). 이 인질들은 가해자들과 강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여 자신들을 도우려던 공무원을 위협했다. 인질들은 경찰들이 가해자에게 해를 끼칠 것을 두려워하여 가해자보다 먼저 금고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포획, 외상적 또는 테러(terror) 유대라고도 불리는 이 유대는 금고에서 나온 후로 인질들이 가해자에게 키스하고 껴안는 장면을 포함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George, 2015).

보기에 역설적인 이 반응은 또한 포로수용소의 수용자, 전쟁포로, 중국 공산주의 감

옥에 수용된 민간인, 종교 단체, 학대받은 아동, 근친상간 희생자 및 포주가 알선한 성매매 여성 등 다른 상황과 맥락에서도 나타난다(Graham et al., 1995). Graham 등(1988)은 인질 상황에서 희생자들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매 맞는 여성(battered women)의 심리적 메커니즘과 비교했다. 더 특징적으로, Graham 등(1988)은 지배전략과 생존전략에서 인질 상황과 가정 폭력 상황 사이에 비슷한 점을 발견하였는데, Graham 등(1995)은 이러한 모델을 데이트 폭력 피해 여대생에게 적용하였다. 그들의 모델에서 매 맞는 여성과 인질에서 관찰된 강력한 정서적 유대는 원인이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생존 전략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Graham et al., 1995). 이에 따라 이들은 스톡홀름 증후군의 발달에 피해자의 인식에 기반하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첫째, 한 사람이 폭력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위협한다. 둘째, 위협당한 사람은 도망칠 수 없고, 따라서 학대하는 사람에게 의존한다. 셋째, 위협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 부터 고립되어 있고, 그로 인해 가능한 대체적 관계와 지지 자원이 제거된다. 넷째, 학대하는 사람은 위협당하는 사람에게 약간의 친절함을 보인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피해자는 부인(denial), 가해자에 대한 합리화(rationalization), 그리고 최소화(minimization)와 같은 인지적 왜곡이 발생하고, 이러한 것들이 가해자에 대한 유대감의 결정적인 구성요소라고 제안하였다. Graham 등(1995)은 스톡홀름 증후군이 Dutton과 Painter(1981)가 제시한 외상적 유대, Barry(1995)가 제시한 테러 유대(terror bonding)로도 불릴 수 있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Graham 등(1988)이 제시한 스톡홀름 증후군의 4가지 조건은 외상적 유대의 두 가지 조건인 힘의 불균형, 간헐적 학대와 중첩된다. 이와 같이 외상적 유대는 스톡홀름 증후군과 거의 유사한 개념을 지니고 있으며, 실제로 유사한 상황에서 사용된다(Jülich, 2005).

이러한 양상을 국내의 연구에서 살펴보면,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2017)의 2017 데이트폭력 피해 및 실태조사에서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였음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중 가장 높은 응답은 ‘피해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로 20대 42.5%, 30대 33.3%이었다. 또한 박경은과 유영권(2017) 등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이상화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축소하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이정은 등(2007)의 연구에서 언급된 ‘이타적 망상’ 또한 외상적 유대와 비슷한 양상임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은 어떤 이유든 외상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피해자의 생존전략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미영(2004)의 연구에서도 피해 아동이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고 부모를 정당화하는 사례들이 나타나는 데 이 또한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례는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상황 대한 연구에서도 빈

변하게 나타난다(권진숙, 박시현, 2019; 김도애, 이은화, 2003; 신소라, 2018; 우현진 등, 2017). 이 같은 반응들은 피해자들의 외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방식으로든 상황을 합리화함으로써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도움의 손길이 있더라도 그 상황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의지보다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므로 상황을 지속하고, 그 상황에 남겨짐으로써 받는 지속적인 피해에 수반되는 자기감의 손상을 생각한다면 복합외상사건 상황 하에서 외상적 유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한다.

한편, Jülich(2005)가 아동성학대 피해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수행한 질적 연구에서 스톡홀름 증후군의 인질이나 아동성학대 피해자는 스스로 학대를 멈출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스톡홀름 증후군의 인질들과 아동성학대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보호하고, 또한 그 수단으로 자기비난 등을 하면서 학대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고 하였다(Jülich, 2005). 이러한 양상은 국내의 아동학대 사례 등에서도 드러나는데 학대 받은 아동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진행한 고미영(2004)의 질적연구에서 피해자들의 상황은 외상적 유대와 비슷하다. 피해 아동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내용 중 하나는 ‘예측 불가능’이었는데, 이들은 대체로 학대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소망적 사고’에서는 술만 안 먹으면 아버지가 잘해준다고 언급하고, ‘나의 잘못’에서는 학대받은 아동들이 학대의 이유가 본인의 잘못 때문이라고 언급하는 등의 방식들로 부모를 보호하고 정당화한다. 이와 같은 점들은 모두 Dutton과 Painter(1981), 그리고 Graham 등(1995)이 언급한 외상적 유대의 발생 조건에 충족하고 그 양상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동성학대 피해를 입은 성인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 Jülich(2005)는 Graham 등(1995)이 말한 4가지 조건을 언급하면서 외상적 유대의 발달에 도망칠 수 없다는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는데, 이는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Graham 등(1995)이 언급한 인지적 왜곡의 양상을 보였고, 그들은 장기적인 피해에 적응된 것으로 보였으며, 따라서 외상적 유대의 존재는 이러한 사람들의 회복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연구자는 결론을 내렸다.

2. 외상적 유대와 복합PTSD

외상적 유대의 발생조건과 복합외상사건은 중첩된다. 전형적인 복합외상사건이라 할 수 있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상황은 외상적 유대 발생에 필요한 힘의 불

균형과 간헐적인 학대에 모두 부합한다. 실제로 외상적 유대라는 개념을 주장한 Dutton과 Painter(1981)은 가정폭력 상황으로 그 개념을 시작하였고, Graham 등(1995) 또한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을 중심으로 그 개념을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상적 유대에 대한 선행연구들 또한 성학대 피해 여성(Julich, 2005), 여성쉼터 이용자(Demarest, 2009), 데이트폭력 피해 여성(George, 2015), 성매매 피해 여성(Sanchez et al., 2019)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복합외상의 전형적인 사건으로써 외상적 유대가 복합외상사건 하에 나타날 수 있는 역설적인 증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기존의 복합PTSD 진단기준의 하위 요인 중 하나로 ‘가해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다(Pelcovitze et al., 1997). 이는 가해자에 대한 이상화와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은 외상적 유대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인다. 하지만 Luxenberg 등(2001)은 ‘가해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복합PTSD의 진단기준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였으며,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외상적 유대가 의학적인 진단으로 포함되지 않는 이유를 연구의 부족으로 설명한 선행연구들(Karan & Hansen, 2018; Reid, Haskell, Dillahunt-Aspillaga, & Thor, 2013)로 추론해 봤을 때 복합PTSD에 포함될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복합PTSD는 증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외상적 유대는 가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외상적 유대는 복합PTSD의 하위 요인이 아니라 독립적인 증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외상적 유대는 스토크홀름 증후군 척도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심리적 손상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Ahmad et al., 2018), 또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사례에서 외상적 유대는 PTSD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Demarest, 2009). 이 같은 결과는 외상적 유대를 처음 언급하였던 Dutton과 Painter(1993), Graham 등(1995)이 외상적 유대가 부정적인 증상들과 상관이 있을 것이라 언급한 결과와 상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대로 외상적 유대가 부정적인 심리적 증상과 상관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다른 연구결과를 통해 추론해볼 수 있다. 자살 테러리스트에게 인질로 잡힌 포로를 질적연구 한 Speckhard 등(2005)은 외상적 유대가 가해자에 의해 죽을 수도 있는 고립된 상황에서 외상에 대한 자동적이고 무의식적 감정 반응으로 인해 나타난다고 보고하며, 다양한 질적연구의 사례를 예시로 들며 외상적 유대가 즉시적으로 외상 중 해리(peritraumatic dissociation)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다양한 연구 결과 외상 중 해리는 이후의 PTSD증상을 유의하게 예측하지만(Griffin et al., 1997; Marx et al.,

2005; Schnurr et al., 2004), 외상 중 느끼는 무력감, 공포와 같은 강렬한 정서적 상태에서 개인을 보호하는 등, 외상 중 해리의 즉시 효과는 적응적이다(Lensvelt-Mulders et al., 2008). 이와 같은 특징에도 불구하고 외상적 유대가 외상 중 해리와 비슷하다고 언급한 Speckhard 등(2005)은 다양한 질적연구의 예시를 제시하며 외상적 유대가 외상 사건 중에는 외상 중 해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미래의 영향에 대해 검증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아마도 외상적 유대를 경험한 사람이 미래에 사건을 재평가하면서 심리적 고통이 증가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 같은 제안을 고려해 보았을 때, 외상적 유대가 높은 집단이 더 많은 고통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외상적 유대를 겪는 개인은 생존 전략으로 가해자를 이상화하고 자신이 죄책감을 내면화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합리화한다(Graham et al., 1995).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고통을 느끼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자기 비난과 주변 사람들의 적절한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더욱 심각한 고통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외상적 유대를 겪은 개인이 훗날 그 상황을 재평가하더라도 쉽사리 인정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 상황에 자신이 보였던 행동들이 사회적 기준에서 이해되기 힘든 것이라는 걸 느끼게 된다면 피해자 스스로 극심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복합 PTSD가 PTSD와 자기조절관련 장애의 혼합이라는 점(Cloitre et al., 2014)과 외상적 유대가 높은 사람들도 외상적 유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한다는 연구결과(Graham et al., 1995)를 고려해보았을 때 외상적 유대는 그 직후의 시기를 제외한 어느 시기에 건한 개인에게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Graham 등(1988)은 외상적 유대가 관계의 종결과 함께 끝나는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외상적 유대를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대로 외상적 유대가 개인에게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변인이라면 학대를 받았음에도 아직 가족과 함께 살고 있거나, 데이트폭력을 당했음에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외상적 유대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외상적 유대가 높은 사람은 현 상황을 축소보고하거나 부인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개입이 힘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관계의 종결에 따른 외상적 유대가 차이가 보인다면 적절한 시기에 개입하고 중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합PTSD는 성격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으로(안현의, 2007), 그 피해는 장기적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고통스럽지 않았더라도 외상적 유대가 깨어진 후 개인이 겪는 고통은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외상적 유대의 수준에 따른 복합PTSD의 각 하위요인별 차이를 비교하여 외상적 유대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본다면 그 이후의

경과를 추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Ⅲ.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539명에게 온라인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성만 당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선행 연구결과 남성도 데이트폭력 경험을 보고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에게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의 특성상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하여 구글 폼을 이용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2019년 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총 539명이었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529명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후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둘 중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는 응답을 제외한 300명을 대상으로 외상적 유대의 상위 35% 집단과 하위 35%에 해당하는 집단을 삭제하여 총 2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표 3>과 같다.

<표 3> 설문참여자의 특성

(n=211)

인구통계학적 변인	분류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61	28.9
	여	150	71.1
연령	20대	190	90.0
	30대	16	7.6
	40대	5	2.4
학력	고졸	23	10.9
	전문대 재학	1	0.5
	전문대 졸업	6	2.8
	대학교 재학	122	57.8
	대학교 졸업	43	20.4
	대학원 재학	5	2.4
대학원 졸업	11	5.2	
애인 유무	없음	93	44.1

B. 측정도구

1.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 (K-CTQ)

아동학대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Bernstein과 Fink(1998)가 개발한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CTQ)를 유재학, 박지선, 박두흠, 유승호 및 하지현(2009)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K-CTQ)를 사용한다. 해당 질문지는 정서학대(예: 우리 부모님은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 말했다.), 신체학대(예: 가족 중 누군가에게 심하게 맞아 약국이나 병원에 간 적이 있다.), 성학대(예: 누군가 나의 성기를 만지거나, 나에게 그들의 성기를 만지게 한 적이 있다.), 정서방임(예: 우리 가족은 모두 친하게 지냈다.), 신체방임(예: 내가 아플 때 우리 가족은 나를 의사에게 데려갔었다.) 총 다섯 개의 하위 척도와 타당도 척도(Minimization/Denial Scale)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유재학 등, 2009). 본 연구에서 타당도 척도를 제외한 25문항으로 연구를 실시한다. 모든 하위척도는 전혀 아니다(1점), 거의 아니다(2점), 보통(3점), 조금 그랬다(4점), 항상 그랬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다(유재학 등, 2009). K-CTQ의 타당화 연구에 따르면 해당 질문지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제작된 것으로써 막연히 아동기 경험에 대해 답을 해달라는 것보다는 청소년기 이전의 아동기 경험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주관적 해석이 반응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제언(유재학 등, 2009)에 따라 본 연구는 중학교 입학 전으로 그 기준으로 정하여 중학교 입학 전 가족 내 경험을 묻는 것이라는 말로 설문을 시작하였다. 한편, 조혜나(2016)는 25점에서 31점은 외상이 없거나 최소의 외상 경험, 41점에서 51점은 정도에서 중등도, 56점에서 68점은 중등도에서 중증, 73점 이상은 극심한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기준에서 정도 수준인 41점 이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조혜나, 2016). 조혜나(20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정서방임 .89, 신체학대 .82, 성학대 .79, 정서방임 .80, 신체방임 .51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재학 등(2009)의 신체방임의 문항이 주관적 기준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제언에 따라 신체방임의 문항 중 '나는 배불리 먹지 못했다'를 '어렸을 적 나는 늘 배가 고팠다'로, '나는 옷차림이 지저분했었다'를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지저분한 옷을 입고 다녔다'로 변경하여 사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의 각 하위요인 별 문항구성과 Cronbach's α 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아동기 외상 질문지의 문항구성 및 Cronbach's α

하위영역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신체학대	5	9, 10, 11, 14, 15	.862
성학대	5	18, 19, 20, 21, 24	.852
정서학대	5	3, 8, 13, 16, 22	.821
정서방임	5	5, 7, 12, 17, 25	.912
신체방임	5	1, 2, 4, 6, 23	.662
전체	25		.909

2. 개정된 갈등대처척략척도 (CTS2)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Straus, Hamby, Boney-McCoy와 Sugarman(1996)이 개발한 개정된 갈등 척략 척도(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CTS2)를 김정란(1999)이 국내의 실정에 맞게 번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래의 CTS2는 신체적 폭행(Physical assault), 심리적 공격(Psychological aggression), 협상(Negotiation), 상처(Injury), 성적 강제(Sexual coercion)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김정란(1999)은 CTS2의 하위척도 중 신체적 폭력척도, 심리적 폭력척도, 성적 폭력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국내의 데이트폭력에 관한 연구에서 오랫동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척도이다. 본 척도는 심리적 폭력 11문항(예: 고향을 지르거나 큰 소리를 낸 적이 있다.), 신체적 폭력 7문항(예: 날 계속해서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성적 폭력 4문항(예: 성행동을 하기 위해 잡거나 누르는 등의 완력을 사용한 적이 있다.)으로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점(없음)부터 5점(매우 자주)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을 자주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 피해 대상으로 실험연구를 진행한 차성이(2009)의 연구에 따라 27점 이상의 점수를 보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차성이(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67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각 하위요인 별 문항구성 및 Cronbach's α 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갈등척략척도의 문항구성 및 Cronbach's α

하위영역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심리적 폭력	11	1, 2, 3, 4, 5, 6, 7, 8, 9, 10, 11	.854
신체적 폭력	7	12, 13, 14, 15, 16, 17, 18	.794
성적 폭력	4	19, 20, 21, 22	.761
전체	22		.902

3. 스톡홀름 증후군 척도 (SSS)

외상적 유대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Graham 등(1995)이 74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15개 항목의 사건충격척도(Impact of Event Scale), 18개 항목의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Scale), 127개 항목의 스톡홀름 증후군의 특징을 담은 문항을 이용하여 최종 4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스톡홀름 증후군 척도(Stockholm Syndrome Scale: SSS)를 만들었다. 그 후 George(2015)가 상관이 약한 문항과 반복되는 문항을 삭제하여 단축형 척도를 만들었으며, George(2015)의 단축형 척도를 본 연구자가 수정·번안하여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핵심(Core), 심리적 손상(Psychological Damage), 애정 의존(Love Dependency) 총 세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영역은 대인관계 학대에서 대처전략을 측정하는 문항이며, 심리적 손상 영역은 해당 연구자의 가설에 근거하여 낮은 자존감, 우울 등 경계선 성격의 특징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애정 의존 영역은 가해자에 대한 의존을 나타낸다.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 8문항, 심리적 손상 8문항, 애정 의존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나는 항상 이렇게 느낀다)부터 7점(나는 절대 이렇게 느끼지 않는다)까지 7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적 유대의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에 응답한 사람 중 상위 35%를 '고'집단, 하위 35%를 '저'집단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한다. George(201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핵심 .97, 심리적 손상 .92, 애정 의존 .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각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Cronbach's α 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스톡홀름 증후군 척도의 문항구성 및 Cronbach's α

하위영역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	------	------	---------------------

핵심	8	1, 2, 3, 4, 5, 6, 7, 8, 9, 10, 11	.821
심리적 손상	8	12, 13, 14, 15, 16, 17, 18	.837
애정 의존	7	19, 20, 21, 22, 23	.904
전체	22		.921

4. ICD-11 외상 질문지(ICD-TQ ver 1.4)

복합PTSD의 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Cloitre, Roberts, Bisson과 Brewin(2015)이 개발한 ICD-11 외상 질문지(ICD-11 Trauma Questionnaire)를 Murphy, Elklit, Dokkedahl과 Mark Shevlin(2016)이 수정한 것을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ICD-11의 PTSD 및 복합PTSD를 진단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PTSD는 각성과 과정계의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재경험(re-experiencing : RE), 회피(avoidance : AV) 및 위협감(sense of threat : Th) 3개의 군집을 포함하며, 복합PTSD는 과활성화(hyper-activation) 또는 비활성화(deactivation)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정서조절(affect regulation : AR), 부정적 자기개념(negative self-concept : NSC), 그리고 불안정한 관계(disturbed relationships : DR)과 같이 자기조직화의 장애(disturbances in self-organisation : DSO) 증상을 포착하는 16가지 증상을 4개의 군집으로 묶어 측정한다(Murphy et al., 2016).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0점(전혀 아니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다.

Gilbar, Hyland, Cloitre와 Dekel(2018)의 연구에서 밝힌 Cronbach's α 는 재경험 0.72, 회피 0.82, 위협지각 0.54, 정서조절 0.84, 부정적 자기개념 0.84 그리고 DR 0.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각 하위요인 별 문항구성 및 Cronbach's α 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ICD-11 외상 질문지의 문항구성 및 Cronbach's α

하위영역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재경험	2	1, 2	.725
회피	2	3, 4	.796
위협감	2	5, 6	.713
정서조절_과활성화	5	7, 8, 9, 10, 11	.782

정서조절_비활성화	4	12, 13, 14, 15	.801
부정적 자기개념	4	16, 17, 18, 19	.912
불안정한 관계	3	20, 21, 22	.862
전체	22		.936

5.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SDS-24)

사회적 바람직성 측정을 위해 김용석(2018)이 개발한 SDS-24를 사용한다. 개발자는 이전의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는 척도들의 중심문항을 선별하고, 사회적 바람직성과 유사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는 대인관계 지향성 척도(성승연, 1994), 성격검사(차정은, 2005)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문항들을 추가하였다(김용석, 2018).

선행 연구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은 사람들은 본인이 가정폭력 가해자임을 수용하는 경우가 낮았고(Arias, & Beach, 1987), 폭력 가해 남성 경우 보고하는 폭력의 빈도와 정도가 사회적 바람직성의 정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Saunders, 1991),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제거한 결과 가해자들의 우울의 점수가 2배 가량 증가하였다(Saunders & Hanusa, 1986). 이와 같은 사회적 바람직성은 측정결과의 타당도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김용석, 황재경, 홍선경, 위수경, 2008).

한편, Graham 등(1995)은 스톡홀름 증후군 척도 개발 연구에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Marlowe-Crowne Social Desirability Scale: M-C SDS)와의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는데, 그 둘 사이에는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이 스톡홀름 증후군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을 시사한다(Graham et al., 1995). 본 연구에서 수행할 대상자들의 경우 그 특성상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고려되는데 Saunders(1991)가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외상적 유대에 대한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조정하고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자기기만과 인상관리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기만 16문항(예: 위급한 상황에서도 남을 돕는 일에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 인상관리 8문항(예: 누군가 나에게 일을 시키면 바쁜 척 할 때가 있다.)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다. 해당 척도의 채점은 자기기만 하위요인의 경우 각 문항에서 1, 2, 또는 3으로 응답

한 경우 0점, 4 또는 5로 응답한 경우 1점을 부여한 다음 점수를 모두 더하고, 인상관리 하위요인의 경우 3, 4, 또는 5로 응답한 경우 0점을, 1 또는 2로 응답한 경우 1점을 부여한 다음 점수를 모두 더한다. 총점이 많을수록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다고 해석한다(김용석, 2018). 김용석(2018)의 연구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Cronbach's α 는 자기기만, 인상관리 각각 .80, .73이었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 Cronbach's α 는 자기기만, 인상관리 각각 .81, .7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행동에 대해 연구할 경우 인상관리 척도를 사용하라는 연구자의 제언에 따라, 인상관리 척도 8문항만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75로 나타났다.

C. 연구문제

본 연구는 학대유형과 외상적 유대에 따른 복합PTSD의 차이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관계의 유지 여부에 따라 외상적 유대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가설 1-1. 관계가 유지중인 사람들이 외상적 유대가 더 높을 것이다.

연구문제 2. 학대유형에 따라 복합PTSD 증상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가설 2-1. 데이트폭력, 아동학대, 중복집단 순으로 복합PTSD를 측정하는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일 것이다.

연구문제 3. 외상적 유대에 따라 복합PTSD 증상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가설 3-1. 외상적 유대가 높은 집단이 복합PTSD를 측정하는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3-2. 복합PTSD에 있어 학대유형보다 외상적 유대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D. 연구절차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SPSS 23.0을 사용하여 기초 자료를 분석하고, Saunders(1991)이 제안한 방식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을 이용한 외상적 유대의 조정점수를 구한다. Saunders(1991)이 제안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종속변수(Y)를 계산한다. 둘째, 사회적 바람직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회귀모형을 분석한다. 셋째,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의 종속변수 점수를 계산한다(김용석, 2018). 이것을 회귀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회귀식에서 Y는 종속변수, X는 사회적 바람직성, b는 기울기를 의미한다. Y'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고려한 조정점수이다.

$$Y = a + bX$$

$$Y' = Y - bX$$

그 다음, 이원분산분석(two-way analysis of variance)을 이용하여 아동학대와 외상적 유대 수준에 따른 복합PTSD증상의 차이가 유의한지 검증한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사용한다.

둘째, Saunders(1991)가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외상적 유대의 조정 점수를 구한다.

셋째, 적어도 하나의 복합외상사건을 경험한 집단을 구한 후, 외상적 유대 상하위 35%에 포함되는 집단을 구한다.

넷째,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를 확인한다.

다섯째,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관계의 유지여부 별 주요 변인의 차이를 구한다.

여섯째,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이용하여 학대유형과 외상적 유대에 따른 복합PTSD의 총점 및 하위요인의 차이를 구한다.

일곱째,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의 부분에타제곱을 이용하여 학대유형과 외상적 유대의 효과크기를 구한다.

IV. 연구결과

A.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외상적 유대, 복합PTSD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여 <표 8>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들의 왜도 값은 3을, 첨도 값은 10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Kline, 2015), 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8> 주요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n=211)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아동학대	49.01	15.82	.90	.61
데이트폭력	30.00	8.61	2.81	9.56
외상적 유대	73.47	24.70	.28	-1.20
외상적 유대_중심	24.63	9.15	.54	-.59
외상적 유대_심리적 손상	30.34	10.64	.26	-.82
외상적 유대_애정의존	18.51	10.31	.87	-.37
복합PTSD	31.85	18.24	.26	-.77
복합PTSD_재경험	3.05	2.38	.34	-.98
복합PTSD_회피	3.86	2.31	-.16	-.99
복합PTSD_위협감	3.16	2.29	.25	-.96
복합PTSD_정서조절_과활성화	8.19	4.52	.02	-.70
복합PTSD_정서조절_비활성화	3.77	3.69	.80	-.31
복합PTSD_부정적 자기개념	5.83	4.65	.45	-.91
복합PTSD_불안정한 관계	4.00	3.53	.49	-.87

B. 각 요인별 상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요인 간 상관을 검증하기 위해 Pearson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측정변인들 간 상관

	CA	CA1	CA2	CA3	CA4	CA5	DA	DA1	DA2	DA3	SS	SS1	SS2	SS3	ITQ	PT	CPT
CA	1																
CA1	.765**	1															
CA2	.874**	.660**	1														
CA3	.404**	.096	.196**	1													
CA4	.826**	.504**	.733**	.092	1												
CA5	.679**	.366**	.451**	.216**	.520**	1											
DA	.138*	.026	.135*	.176*	.027	.185**	1										
DA1	.079	-.007	.080	.187**	-.046	.129	.959**	1									
DA2	.153*	.049	.142*	.069	.079	.256**	.789**	.642**	1								
DA3	.211**	.081	.208**	.159*	.167*	.154*	.755**	.618**	.497**	1							
SS	.286**	.180**	.284**	.139*	.196**	.243**	.221**	.197**	.171*	.218**	1						
SS1	.224**	.180**	.196**	.153*	.101	.198**	.259**	.252**	.160*	.236**	.801**	1					
SS2	.275**	.150*	.309**	.058	.243**	.219**	.188**	.181*	.136*	.155*	.819**	.471**	1				
SS3	.203**	.116	.188**	.137*	.127	.181**	.106	.060	.127	.152*	.839**	.544**	.512**	1			
ITQ	.399**	.234**	.448**	.156*	.323**	.258**	.236**	.188**	.176*	.301**	.634**	.399**	.652**	.491**	1		
PT	.320**	.207**	.381**	.173*	.243**	.121	.172*	.143*	.074	.265**	.406**	.304**	.418**	.271**	.828**	1	
CPT	.394**	.224**	.433**	.136*	.325**	.288**	.239**	.189**	.200**	.289**	.665**	.400**	.684**	.532**	.977**	.688**	1

주. CA=아동학대, CA1=신체적학대, CA2=정서적학대, CA3=성적학대, CA4=정서적방임, CA5=신체적방임, DA=데이트폭력, DA1=심리적폭력, DA2=신체적폭력, DA3=성적폭력, SS=외상적 유대, SS1=중심, SS2=심리적손상, SS3=사랑의존, ITQ=복합PTSD전체, PT=PTSD, CPT=CPTSD, * $P < .05$, ** $P < .01$, *** $P < .001$

상관분석 결과 아동학대와 데이트폭력은 .138($p < .05$), 아동학대와 외상적 유대는 .286($p < .01$), 아동학대와 복합PTSD는 .399($p < .01$), 데이트폭력과 외상적 유대는 .221($p < .01$), 데이트폭력과 복합PTSD는 .236($p < .01$), 외상적 유대와 복합PTSD는 .634($p < .01$)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C.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본 연구에서 조사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성별, 연령, 학력 중 성별에서만 아동학대 ($t = -3.581, p < .001$), 복합PTSD ($t = -3.496, p < .01$)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의 통제여부를 정하기 위해 김은경(2016)이 사용한 방식대로 다변량분산분석(MANOVA)를 사용하였다.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10>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

종속변수	성별	평균	표준편차	η^2
아동학대	남	43.07	13.99	.058
	여	51.43	15.92	
데이트폭력	남	29.85	5.36	.000
	여	30.06	9.63	
외상적 유대	남	69.92	24.10	.055
	여	74.92	24.88	
복합PTSD	남	25.15	18.60	.008
	여	34.58	17.42	

Pillai's Trace = .090, F = 5.066, P = .001, $\eta^2 = .090$

다변량분산분석(MANOVA)를 사용한 결과, 결과 변인들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그에 따라 효과 크기에 대해 η^2 을 확인한 결과 성별로 인한 차이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eta^2 = .090$) 주 분석에서 통제하지 않았다.

D. 관계 유지 여부에 따른 외상적 유대와 복합PTSD 점수의 차이

관계의 유지여부에 따라 외상적 유대와 복합PTSD에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 본 연구가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지나 관계가 종결됐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외상적 유대 질문지를 작성하면서 현재의 연인 혹은 배우자를 떠올린 사람만 관계의 유지관계에 있다고 가정하였다. 결과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 관계 유지 여부에 따른 외상적 유대와 복합PTSD 점수의 차이

구분	유지여부	N	평균(M)	표준편차(SD)	t(p)
외상적 유대	유지	97	68.53	23.55	-2.720(.007)**
	종결	114	77.68	24.98	
복합PTSD	유지	97	28.96	18.32	-2.145(.033)*
	종결	114	34.32	17.88	

$p^* < .05$, $p^{**} < .01$, $p^{***} < .001$

관계의 유지 여부에 따라 외상적 유대와 복합PTSD 점수에 차이를 보였다. 외상적 유대에서 종결(M=77.68) 집단이 유지(M=68.53)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p < .01$), 복합PTSD에서도 마찬가지로 종결(M=34.32) 집단이 유지(M=28.96) 집단보다 더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5$).

E. 학대유형 및 외상적 유대 수준에 따른 복합PTSD의 차이

학대유형 및 외상적 유대에 수준에 따라 복합PTSD에서 차이가 있는지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과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2> 학대유형 및 외상적 유대 수준에 따른 복합PTSD의 차이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η^2
학대유형	2431.07	2	1215.54	6.09	.003	.056
외상적 유대	20699.67	1	20699.67	103.63	.000	.336

<표 13-1> 학대유형 및 외상적 유대 수준에 따른 재경험의 차이

모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η^2
학대유형	3.82	2	1.91	.39	.680	.004
외상적 유대	155.02	1	155.02	31.35	.000	.133
학대유형*외상적 유대	1.59	2	.80	.16	.851	.002
오차	1013.59	205	4.94			
전체	3153.00	211				

두 개의 독립변수 중 학대유형의 유의확률은 .680으로 .05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종속 변수인 재경험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외상적 유대의 유의확률은 .000으로 재경험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외상적 유대 저 수준(M=2.17)보다 고 수준(M=3.94)이 재경험에 대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두 독립변수의 상호작용항의 유의확률은 .851로 학대유형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외상적 유대의 η^2 값 또한 .14에 근접한 .133으로 Cohen(1992)의 기준에 의하면 재경험에 대해 큰 효과를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음은 복합PTSD의 하위요인 중 회피에 대한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에 대한 결과는 <표 13-2>에 제시하였다.

<표 13-2> 학대유형 및 외상적 유대 수준에 따른 회피의 차이

모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η^2
학대유형	13.46	2	6.73	1.29	.278	.012
외상적 유대	23.01	1	23.01	4.40	.037	.021
학대유형*외상적 유대	3.04	2	1.52	.29	.748	.003
오차	1071.81	205	5.23			

두 개의 독립변수 중 학대유형의 유의확률은 .278로 .05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종속변수인 회피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외상적 유대의 유의확률은 .037로 .05보다 낮기 때문에 회피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외상적 유대 저 수준(M=3.52)보다 고 수준(M=4.20)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두 독립변수의 상호작용항은 .748로 학대유형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외상적 유대 또한 η^2 값이 .021로 Cohen(1992)의 기준에 의하면 회피에 대해 작은 수준의 영향을 나타냈다.

다음은 복합PTSD의 하위요인 중 위협감에 대한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에 대한 결과는 <표 13-3>에 제시하였다.

<표 13-3> 학대유형 및 외상적 유대 수준에 따른 위협감의 차이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η^2
학대유형	15.51	2	7.75	1.79	.170	.017
외상적 유대	156.59	1	156.59	36.15	.000	.150
학대유형*외상적 유대	1.73	2	.87	.20	.819	.002
오차	887.97	205	4.33			
전체	3204.00	211				

두 개의 독립변수 중 학대유형의 유의확률은 .170으로 .05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종속변수인 위협감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외상적 유대의 유의확률은 .000으로 회피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외상적 유대 저 수준(M=2.24)보다 고 수준(M=4.02)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두 독립변수의 상호작용항은 .819로 학대유형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외상적 유대의 η^2 값 또한 .150으로 Cohen(1992)의 기준에 의하면 위협감에 대해 큰 효과를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음은 복합PTSD의 하위요인 중 정서조절 과활성화에 대한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과 사후검정에 대한 결과는 <표 13-4>에 제시하였다.

<표 13-4> 학대유형 및 외상적 유대 수준에 따른 정서조절 과활성화의 차이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η^2
학대유형	116.14	2	58.07	4.06	.019	.038
외상적 유대	942.51	1	942.51	65.97	.000	.243
학대유형*외상적 유대	47.27	2	23.63	1.65	.194	.016
오차	2929.01	205	14.29			
전체	18448.00	211				
학대유형 Duncan			데이트폭력, 아동학대 < 중복			

두 개의 독립변수인 학대유형과 외상적 유대는 각각 유의확률이 .019, .000으로 모두 유의함을 보여준다. 즉 두 독립변수 모두 종속변수인 정서조절 과활성화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을 의미한다. 하지만 두 독립 변수의 상호작용항의 유의확률은 .194로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학대유형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데이트폭력(M=6.60)과 아동학대(M=7.85)보다 중복(M=9.78)이 통계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외상적 유대는 저 수준(M=5.96)보다 고 수준(M=10.33)이 더 높은 값을 나타냈다.

두 독립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기 때문에 η^2 값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학대유형의 η^2 값은 .038, 외상적 유대의 η^2 값은 .243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속변수인 정서조절 과활성화에 대해 외상적 유대의 영향이 더 큼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정서조절 과활성화에 대해 학대사건의 유형보다 외상적 유대 수준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다음은 복합PTSD의 하위요인 중 정서조절 비활성화에 대한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과 사후검정에 대한 결과는 <표 13-5>에 제시하였다.

<표 13-5> 학대유형 및 외상적 유대 수준에 따른 정서조절 비활성화의 차이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η^2
학대유형	59.62	2	29.81	3.15	.045	.030
외상적 유대	667.06	1	667.06	70.43	.000	.256
학대유형*외상적 유대	27.81	2	13.91	1.47	.233	.014
오차	1941.72	205	9.47			
전체	5857.00	211				
학대유형 Duncan		데이트폭력 < 아동학대, 중복				

두 개의 독립변수인 학대유형과 외상적 유대는 각각 유의확률이 .045, .000으로 모두 유의함을 보여준다. 즉 두 독립변수 모두 종속변수인 정서조절 비활성화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을 의미한다. 하지만 두 독립 변수의 상호작용항의 유의확률은 .233으로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학대유형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데이트폭력(M=2.45)보다 아동학대(M=3.90)와 중복(M=4.75)이 통계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외상적 유대는 저 수준(M=1.81)보다 고 수준(M=5.49)이 더 높은 값을 나타냈다.

두 독립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기 때문에 η^2 값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학대유형의 η^2 값은 .030, 외상적 유대의 η^2 값은 .256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속변수인 정서조절 비활성화에 대해 외상적 유대의 영향이 더 큼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정서조절 비활성화에 대해 학대사건의 유형보다 외상적 유대 수준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다음은 복합PTSD의 하위요인 중 부정적 자기개념에 대한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과 사후검정에 대한 결과는 <표 13-6>에 제시하였다.

<표 13-6> 학대유형 및 외상적 유대 수준에 따른 부정적 자기개념의 차이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η^2
학대유형	169.28	2	84.64	5.95	.003	.055
외상적 유대	1115.29	1	1115.29	78.46	.000	.277
학대유형*외상적 유대	19.02	2	9.51	.67	.513	.006
오차	2914.02	205	14.21			
전체	11708.00	211				
학대유형 Duncan		데이트폭력 < 아동학대 < 중복				

두 개의 독립변수인 학대유형과 외상적 유대는 각각 유의확률이 .003, .000으로 모두 유의함을 보여준다. 즉 두 독립변수 모두 종속변수인 부정적 자기개념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을 의미한다. 하지만 두 독립 변수의 상호작용항의 유의확률은 .513으로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학대유형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데이트폭력(M=4.09), 아동학대(M=5.45), 중복(M=7.58) 순으로 통계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외상적 유대는 저 수준(M=3.31)보다 고 수준(M=8.06)이 더 높은 값을 나타냈다.

두 독립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기 때문에 η^2 값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학대유형의 η^2 값은 .055, 외상적 유대의 η^2 값은 .277로 나타났다. 이는 종속변수인 부정적 자기개념에 대해 외상적 유대의 영향이 더 큼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부정적 자기개념에 대해 학대사건의 유형보다 외상적 유대 수준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다음은 복합PTSD의 하위요인 중 불안정한 관계에 대한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과 사후검정에 대한 결과는 <표 13-7>에 제시하였다.

<표 13-7> 학대유형 및 외상적 유대 수준에 따른 불안정한 관계의 차이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η^2
학대유형	103.07	2	51.54	6.11	.003	.056
외상적 유대	585.11	1	585.11	69.41	.000	.253
학대유형*외상적 유대	18.29	2	9.14	1.08	.340	.010
오차	1728.17	205	8.43			
전체	5995.00	211				
학대유형 Duncan		데이트폭력 < 아동학대, 중복				

두 개의 독립변수인 학대유형과 외상적 유대는 각각 유의확률이 .003, .000으로 모두 유의함을 보여준다. 즉 두 독립변수 모두 종속변수인 불안정한 관계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을 의미한다. 하지만 두 독립 변수의 상호작용항의 유의확률은 .340으로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학대유형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데이트폭력(M=2.48)보다 아동학대(M=4.16)와 중복(M=5.13)이 통계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외상적 유대는 저 수준(M=2.17)보다 고 수준(M=5.61)이 더 높은 값을 나타냈다.

두 독립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기 때문에 η^2 값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학대유형의 η^2 값은 .056, 외상적 유대의 η^2 값은 .253로 나타났다. 이는 종속변수인 불안정한 관계에 대해 외상적 유대의 영향이 더 큼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불안정한 관계에 대해 학대사건의 유형보다 외상적 유대 수준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대유형 및 외상적 유대 수준에 따른 복합PTSD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관계가 종결된 집단이 더 높은 수준의 외상적 유대를 보였다. 이는 스톡홀름 증후군 척도를 제작한 Graham 등(1988)은 외상적 유대가 아마도 관계의 종결과 함께 끝날 것 같다고 제안과 상반된다. 이에 대한 이유를 추론해보자면 외상적 유대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은 상황의 발생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가해자를 옹호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관계가 종결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Speckhard 등(2005)은 외상적 유대의 장기적 영향에 대해 피해자가 미래에 회고적으로 상황을 재평가한다면 그 당시의 무능력한 자신의 모습에 수치심을 느끼게 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피해자는 본인 스스로도 바람직하지 않음을 깨닫고도 그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관계가 종결됐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가해자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그 당시의 무기력하고 비합리적인 자신의 행동에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그 당시의 상황이 잘못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재평가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피해자에게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을 더 격렬하게 회피한다. 즉, 그 당시의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은 그 당시의 자신을 비난하는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외상 상황에서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부인, 축소화 그리고 합리화(Graham et al., 1995)를 사용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인, 축소화, 합리화는 외상적 유대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변인으로 이와 같은 방어기제들은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게 만들고, 피해자들의 심리적 고통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부인, 합리화와 같은 성숙하지 않은 방어기제들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정욱, 2003; 이인길, 이근후, 1991)들의 존재는 이와 같은 추론을 뒷받침한다. 즉, 관계가 종결됨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더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상 상황 중에 했던 자신의 행동을 부적절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기 위해 더 강렬하게 외상적 유대를 유지한다.

둘째, 학대유형에 따라 복합PTSD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모든 변인에서 테이트폭력 집단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고, 그 뒤로는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중복집단 순이었

다. 이는 Cloitre 등(2009)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더 어린 나이에 겪는 복합외상사건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개의 사건을 겪는 것이 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준다. 따라서 복합PTSD 증상을 보이는 내담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학대를 경험한 시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기 학대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재희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아동기 학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상적 유대 수준은 모든 하위요인에서 외상적 유대 고 수준의 집단이 더 심각한 증상을 나타냈다. 외상적 유대를 겪는 개인은 스스로도 현재의 상황이 사회적으로 납득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생존을 위해 선택한 전략으로 그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해자의 잘못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계를 합리화 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상황의 원인을 본인 탓으로 돌리는 등 죄책감을 내면화 하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자기 개념이 손상되고, 신체적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계에 대해 주변에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거나, 자신을 깎아내리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과정의 반복으로 주변의 적절한 개입과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된다. 외상적 유대가 매우 가까운 사이에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상황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음으로써 관계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데, 그 기간만큼 피해자의 왜곡된 인지 또한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결과적으로 외상적 유대가 지속되면서 증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는 PTSD의 주요한 보호 요인이 사회적 지지라는 것(Knetig, 2012)과 Wyatt와 Newcomb(1990)의 연구에서 자기 비난과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은 장기적으로 PTSD의 심각성과 연관이 있었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특히 부분에 타제곱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외상적 유대가 학대유형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복합PTSD를 이해하는 데 있어 외상적 유대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외상적 유대를 겪는 개인이 자기 비난을 통해 자기 개념이 손상되고,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피해가 장기화되는 특징에 따라 결국에는 상황을 극복할 가능성을 낮추고 내적, 외적으로 피해자 스스로를 파괴시킨다. 따라서 외상 상황, 외상 후의 피해자들에 대한 개입을 할 때 외상적 유대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학대유형과 외상적 유대에 따라 복합PTSD 증상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같은 결과를 통해 얻게 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톱홀름 증후군 척도를 제작한 Graham 등(1995)에 따르면, 외상적 유대는 사

회적 바람직성과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는 외상적 유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외상적 유대가 부정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으로 질문에 응할 때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앞선 소수의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결과를 통제하지 않은 채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사용하여 외상적 유대의 조정점수를 구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외상적 유대라는 개념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외상적 유대와 거의 유사한 개념인 ‘스톡홀름 증후군’은 기사에서도 종종 접할 수 있어 일반인에게도 낯설지 않을 정도로 유명한 개념이지만, 그러한 개념을 도입하여 연구를 진행한 사례는 없다. 몇몇 질적연구의 사례에서 외상적 유대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지만 그러한 양상을 외상적 유대라고 명칭하지 않는다. 본 연구를 통해 복합외상 상황 하에서 보이는 역설적인 양상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개념을 정립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질 수 있다.

셋째, 외상적 유대가 관계의 종결 이후에 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스톡홀름 증후군 척도를 개발한 Graham 등(1995)은 외상적 유대가 관계의 종결과 함께 끝나는 것 같다고 하였지만, 본 연구 결과 그의 의견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쉼터나 일시보호소 등에 입소한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외상적 유대가 유지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현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회고적 설문을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외상적 유대의 영향을 경험적으로 입증하는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Speckhard 등(2005)은 질적연구의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외상적 유대가 외상 중 해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외상적 유대는 PTSD의 유의한 위험요인이지만, 외상 상황 중에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는 등 즉시효과는 적응적이다. 이와 같은 결론에도 불구하고 Speckhard 등(2005)은 외상적 유대의 장기적 효과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제안하였지만, 그와 관련된 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 외상적 유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합 PTSD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외상적 유대는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고립되어 있으며, 가해자로부터 약간의 친절을 발견했을 때 나타난다(Graham et al., 1995).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생존 전략으로 부인, 합리화 등을 통해 외상적 유대를 유지하고, 그것은 관계가 종결된 이후에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외상적 유대는 어떤 유형의 학대 사건을 경험하였는지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복합외상을 겪은 피해자를 치료 장면에서 만났을 때 먼저 피해자가 현 상황이 생명의 위협이 없는 충분히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안심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하거나, 피해자의 인지적 왜곡을 설부르게 수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설문으로 실시하였지만, 온라인 설문의 특성상 연구대상자들의 응답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응답의 신뢰성을 확보할만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각 집단이 20명에서 50명 사이로 작은 표본을 지니고 있다. 연구 대상의 특성상 대규모 표집에 어려움이 있지만, 연구 결과의 대표성을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더 큰 표본을 필요로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관계의 지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상적 유대 질문지에 응답하며 떠올린 사람,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 현재 연인의 유무 등을 파악하였지만 외상 이후의 정확한 기간을 파악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외상 사건과 경과 기간 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영향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전 연령대에 걸쳐 표집하고자 하였지만, 실제 연구대상의 대부분은 20대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령대 별로 적절한 수의 표집을 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외상적 유대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본 연구는 아동학대와 데이트폭력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외상사건 경험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아동학대, 데이트폭력을 제외한 평생동안의 다른 외상사건을 경험한 경우가 있다면 위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외상사건을 함께 고려한다면 외상적 유대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스톡홀름 증후군 척도와 ICD-TQ척도는 본 연구자가 직접 번안하여 사용한 것으로 국내의 문화에 적절치 않을 수 있다. 특히 스톡홀름 증후군 척도의 경우 더욱 그럴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 같은 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의 문화에 적합하게 타당화된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강효진, 박기환 (2013). 데이트 폭력피해의 위험요인 및 관계지속요인. **한국범죄심리연구**, 9, 27-54.
- 고미영. (2004).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1), 71-102.
- 권진숙, 박시현 (2019). 데이트 폭력 여성피해자의 강압적 통제 경험.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9(1), 46-58.
- 김도애, 이은화 (2003). 대상관계이론을 적용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 상담사례 연구: 페어베언의 분열적 방어와 도덕적 방어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11, 101-131.
- 김수정, 정익중 (2013). 아동학대가 우울, 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지속 효과와 최신 효과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3), 1-28.
- 김수지 (2012). 성매매 여성의 복합외상과 MMPI-2 프로파일 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4), 705-726.
- 김용석 (2018).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SDS-24) 의 타당화 및 적용. **사회복지연구**, 49(3), 87-114.
- 김용석, 황재경, 홍선경, 위수경 (2008). 복지관 유형별 이용자 만족도와 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0(3), 129-163.
- 김은경 (2016). 불안정 성인애착, 내면화된 수치심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엽, 이서원 (2005). 부부의 의사소통유형과 가정폭력.
- 김정란 (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 행동**,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란, 김경신 (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7(8), 73-90.
- 김정옥. (2003). 방어 성숙도와 상담자 개입이 심리증상 및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현 (2019). 또 학대당할 텐데...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1241442775311?did=NA&dtype=&dtypecode=&prnewsid=>. 에서 2019년, 01월, 28일 자료 얻음.

- 김태훈 (2016). ‘친권의 닷’에 걸린 아동학대 피해자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271713011&code=940100.에서 2016년, 08월, 27일 자료 얻음.
- 박경은, 유영권 (2017).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심리내면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711-742.
- 박미량 (2009). 한국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 가해와 피해에 관한 연구: 성과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3(2), 193-227.
- 박선미 (2017). 아동기 외상 유형이 외상 경험 대학생의 대인관계 철회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경직성의 매개효과.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은 (2017).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 갈등해결전략의 조절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2017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 서경현 (2011). 데이트 폭력과 가정폭력 경험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연구. 청소년학연구, 18(5), 219-243.
- 신소라 (2018). 데이트폭력 피해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사례분석. 한국범죄심리연구, 14, 47-62.
- 신은정, 김정민, 윤정미 (2017). 대학생의 아동기 대인 간 외상경험이 자기체계손상에 미치는 영향: 정서지능과 다차원적 경험회피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 아동심리치료학회지, 12, 89-106.
- 안하영 (2019). 아동기 외상경험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현의 (2007). 복합외상 (complex trauma) 의 개념과 경험적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1), 105-119.
- 안현의, 장진이, 조하나. (2009). 자기체계의 손상으로 본 복합외상증후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2), 283-301.
- 양계령 (2008). 심리적 학대와 자아탄력성이 복합 PTSD 에 미치는 영향: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정희 (2012) 해외파병군인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PTSD) 에 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5, 72-103.
- 우현진, 장숙희, 권호인 (2017).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극복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

- 리학회지: 여성, 22(3), 315-335.**
- 유선영 (2000). **여대생의 가정폭력 피해와 데이트폭력 피해간의 매개 요인에 관한 연구: 데이트폭력 허용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재학, 박지선, 박두흠, 유승호, 하지현 (2009).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3), 563-578.**
- 윤소리, 김정민, 서유진 (2017). 아동 및 청소년기 외상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외상 후 부정적 인지가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3(1), 107-124.**
- 윤혜미 (2017). 아동학대유형과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사회복지연구, 48(1), 173-206.**
- 이문희, 이수림 (2013). 애착외상 (attachment trauma) 의 이해와 치료적 함의. **청소년상담연구, 21(2), 413-448.**
- 이수림, 이문희 (2018). 한국판 정신화 척도 (Korean Version of The Mentalization Scale) 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9(5), 117-135.**
- 이영숙 (1998). 이성교제중 발생한 폭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6(4), 49-61.**
- 이인길, & 이근후. (1991). 정신분열증 환자의 자아 방어기제 연구. **신경정신의학, 30, 198-212.**
- 이정은, 현명호, 유제민 (2007). 폭력적 데이트관계 지속에 관한 투자모델의 수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4), 983-995.**
- 이정화. (2007) **데이트폭력의 심리적 후유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민, 홍창희 (2008). 성매매 여성들의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553-580.**
- 이지민. (2007) **장기간 반복된 외상 피해자들의 증후군: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나희. (2012) **아동기 외상경험이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 해리경험과 감정표현불능증의 매개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윤경, 김희진 (2014).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과 적응의 관계-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매개효과 분석. **사회복지연구, 45(4), 143-167.**
- 정지선. (2008) **복합외상과 단순외상의 증첩에 따른 심리적 증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8(1), 322-323.**

- 정지선. (2008)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나. (2016) **아동기 외상과 폭식행동의 관계: FFFS, 정서조절곤란, 해리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가연. (2018) **아동기 외상 경험이 관계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경, 송원영 (2014). 여대생의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4), 433-446.
- 최은영, 안현의 (2011). 여대생의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 경험과 자기역량 손상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3), 285-302.
- 최준선 (2016). "데이트 폭력도 범죄"... 경찰, TF 구성해 집중 단속.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19>.에서 2016년, 02월, 02일 자료 얻음.
- 최현정 (2015). 'PTSD 시대'의 고통 인식과 대응. **인지과학**, 26(2), 167-207.
-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2017). 2017 데이트폭력 피해 및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 한국여성의전화 (2016). 2016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한국여성의전화.
- Adorjan, M., Christensen, T., Kelly, B., & Pawluch, D. (2012). Stockholm syndrome as vernacular resource. *The Sociological Quarterly*, 53(3), 454-474.
- Ahmad, A., Aziz, M., Anjum, G., & Mir, F. V. (2018).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Psychological Distress: Mediating Role of Stockholm Syndrome. *Pakistan Journal of Psychological Research*, 33(2).
- Allen, J. G. (2013). *Mentalizing in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attachment trauma*. Karnac Books.
- Allen, J. G., & Fonagy, P. (Eds.). (2006). *The handbook of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John Wiley & Son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American Psychiatric Pub.
- Arias, I., & Beach, S. R. (1987). Validity of self-reports of marital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2(2), 139-149.

- Barry, B. M. (1995). Justice as impartiality.
- Beeghly, M., & Cicchetti, D. (1996). Child maltreatment, attachment, and the self-esteem: emergence of an internal state lexicon in toddlers at high social risk. (pp. : 127-166) In : Hertzog, M. & Farber E. eds. *Annual Process in child Psychiatry and Child Development. Philadelphia, PA: Brunner/Mazel.*
- Bejerot, N. (1974). The six day war in Stockholm. *New Scientist*, 61(886), 486-487.
- Bernstein, D. P., & Fink, L. A. (1998). CTQ: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a retrospective self-report. *San Antonio, TX: Psychological Corp.*
- Briere, J. N., & Elliott, D. M. (1994). Immediate and long-term impacts of child sexual abuse. *The future of children*, 54-69.
- Carmen, E. H., Rieker, P. P., & Mills, T. (1984). Victims of violence and psychiatric illness. *In The gender gap in psychotherapy* (pp. 199-211). Springer, Boston, MA.
- Cloitre, M., Garvert, D. W., Weiss, B., Carlson, E. B., & Bryant, R. A. (2014). Distinguishing PTSD, complex PTSD,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latent class analysis.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5(1), 25097.
- Cloitre, M., Stolbach, B. C., Herman, J. L., Kolk, B. V. D., Pynoos, R., Wang, J., & Petkova, E. (2009). A developmental approach to complex PTSD: Childhood and adult cumulative trauma as predictors of symptom complexity.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2(5), 399-408.
- Cohen, J. (1992). Statistical power analysi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3), 98-101.
- Cook, A., Spinazzola, J., Ford, J., Lanktree, C., Blaustein, M., Cloitre, M., & Mallah, K. & van der Kolk, B.(2005). Complex trauma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sychiatric Annals*, 35(5), 390-398.
- de Fabrique, N., Van Hasselt, V. B., Vecchi, G. M., & Romano, S. J. (2007). Common variables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Stockholm syndrome: Some case examples. *Victims and Offenders*, 2(1), 91-98.
- de Young, M., & Lowry, J. A. (1992). Traumatic bonding: Clinical implications in

- incest. *Child Welfare*, 71, 165 - 175.
- Demarest, R. A.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stockholm syndrom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battered women. *Inquiries Journal*, 1(11).
- Dorahy, M. J., Corry, M., Shannon, M., MacSherry, A., Hamilton, G., McRobert, G., & Hanna, D. (2009). Complex PTSD, interpersonal trauma and relational consequences: Findings from a treatment-receiving Northern Irish sampl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12(1-3), 71-80.
- Dorahy, M. J., Corry, M., Shannon, M., Webb, K., McDermott, B., Ryan, M., & Dyer, K. F. (2013). Complex trauma and intimate relationships: The impact of shame, guilt and dissociat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47(1-3), 72-79.
- Dutton, D. G., & Painter, S. (1993). Emotional attachments in abusive relationships: A test of traumatic bonding theory. *Violence and victims*, 8(2), 105.
- Dutton, D. G., & Painter, S. L. (1981). Traumatic bonding: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attachments in battered women and other relationships of intermittent abuse. *Victimology: an international journal*, 6(1-4), 139-155.
- Dye, M. L., & Eckhardt, C. I. (2000). Anger, irrational beliefs, and dysfunctional attitudes in violent dating relationships. *Violence and Victims*, 15(3), 337.
- Erikson, E. H. (1963). *Youth: Change and challenge*. Basic books.
- Follingstad, D. R., Brennan, A. F., Hause, E. S., Polek, D. S., & Rutledge, L. L. (1991). Factors moderating physic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battered women. *Journal of Family Violence*, 6(1), 81-95.
- Fonagy, P., & Target, M. (1997). Attachment and reflective function: Their role in self-organiza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4), 679-700.
- Fonagy, P., Gergely, G., Jurist, E., & Target, M. (2002). Mentalization, Affective 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 George, V. (2015). Traumatic bonding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 Gilbar, O., Hyland, P., Cloitre, M., & Dekel, R. (2018). ICD-11 complex PTSD among Israeli male perpetrat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Construct validity and risk factor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54, 49-56.
- Graham, D. L., Rawlings, E. I., Ihms, K., Latimer, D., Foliano, J., Thompson, A., &

- Hacker, R. (1995). A scale for identifying “Stockholm syndrome” reactions in young dating women: Factor structure, reliability, and validity. *Violence and victims, 10*(1), 3-22.
- Graham, D. L., Rawlings, E., & Rimini, N. (1988). Survivors of terror: battered women hostages and the Stockholm syndrome.
- Griffin, M. G., Resick, P. A., & Mechanic, M. B. (1997). Objective assessment of peritraumatic dissociation: Psychophysiological indicator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4*(8), 1081.
- Harter, S. (1999). Symbolic interactionism revisited: Potential liabilities for the self constructed in the crucibl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Merrill-Palmer Quarterly (1982-), 677-703*.
- Henton, J., Cate, R., Koval, J., Lloyd, S., & Christopher, S. (1983). Romance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s, 4*(3), 467-482.
- Herman, J. L. (1992). Complex PTSD: A syndrome in survivors of prolonged and repeated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5*(3), 377-391.
- Hines, D. A., & Malley-Morrison, K. (2001). Psychological effects of partner abuse against men: A neglected research area.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2*(2), 75.
- Holden, R. R., & Fekken, G. C. (1989). Three common social desirability scales: Friends, acquaintances, or stranger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3*(2), 180-191.
- Hopper, E. K. (2017). Trauma-informed psychological assessment of human trafficking survivors. *Women & Therapy, 40*(1-2), 12-30.
- Hyland, P., Murphy, J., Shevlin, M., Vallières, F., McElroy, E., Elklit, A., ... & Cloitre, M. (2017). Variation in post-traumatic response: the role of trauma type in predicting ICD-11 PTSD and CPTSD symptom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2*(6), 727-736.
- Jameson, C. (2010). The “short step” from love to hypnosis: A reconsideration of the Stockholm syndrome. *Journal for Cultural Research, 14*(4), 337-355.
- Jongedijk, R. A., Carlier, I. V., Schreuder, B. J., & Gersons, B. P. (1996). Complex posttraumatic sStress disorder: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of PTSD and

- DES NOS among Dutch war veteran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577-586.
- Jülich, S. (2005). Stockholm syndrome and child sexual abuse.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14(3), 107-129.
- Karan, A., & Hansen, N. (2018). Does the Stockholm Syndrome affect female sex workers? The case for a “Sonagachi Syndrome”. *BMC international health and human rights*, 18(1), 10.
- Karatzias, T., Murphy, P., Cloitre, M., Bisson, J., Roberts, N., Shevlin, M., ... & Mason-Roberts, S. (2019). Psychological interventions for ICD-11 complex PTSD symptoms: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sychological medicine*, 1-15.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NY: Guilford Publications.
- Knetig, J. A. (2012). *Mentalization, social competence and the use of social support in a military population: The impact on post-traumatic stress* (Doctoral dissertation, Fielding Graduate University).
- Lensvelt-Mulders, G., van Der Hart, O., van Ochten, J. M., van Son, M. J., Steele, K., & Breeman, L. (2008). Relations among peritraumatic dissociation and posttraumatic stress: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7), 1138-1151.
- Luxenberg, T., Spinazzola, J., & Van der Kolk, B. A. (2001). Complex trauma and disorders of extreme stress (DESNOS) diagnosis, part one: Assessment. *Directions in psychiatry*, 21(25), 373-392.
- Maercker, A., Brewin, C. R., Bryant, R. A., Cloitre, M., van Ommeren, M., Jones, L. M., ... & Somasundaram, D. J. (2013). Diagnosis and classification of disorders specifically associated with stress: proposals for ICD 11. *World Psychiatry*, 12(3), 198-206.
- Maercker, A., Brewin, C. R., Bryant, R. A., Cloitre, M., van Ommeren, M., Jones, L. M., van Ommeren., & Somasundaram, D. J. (2013). Diagnosis and classification of disorders specifically associated with stress: proposals for ICD 11. *World Psychiatry*, 12(3), 198-206.
- Makepeace, J. M. (1981).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97-102.

- Marx, B. P., & Sloan, D. M. (2005). Peritraumatic dissociation and experiential avoidance as predictors of posttraumatic stress symptomatolog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3*(5), 569–583.
- Murphy, S., Elklit, A., Dokkedahl, S., & Shevlin, M. (2016). Testing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ICD-11 PTSD and complex PTSD criteria using a sample from Northern Uganda.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7*(1), 32678.
- Namnyak, M., Tufton, N., Szekely, R., Toal, M., Worboys, S., & Sampson, E. L. (2008). ‘Stockholm syndrome’: psychiatric diagnosis or urban myth?.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17*(1), 4–11.
- Pelcovitz, D., Van der Kolk, B., Roth, S., Mandel, F., Kaplan, S., & Resick, P. (1997). Development of a criteria set and a structured interview for disorders of extreme stress (SIDE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0*(1), 3–16.
- Penfold, P. S. (1999). Why Did You Keep Going for So Long? Issues for Survivors of Long-Term, Sexually Abusive “Helping” Relationships. *Journal of Sex Education and Therapy, 24*(4), 244–251.
- Powers, A., Fani, N., Carter, S., Cross, D., Cloitre, M., & Bradley, B. (2017). Differential predictors of DSM-5 PTSD and ICD-11 complex PTSD among African American women.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8*(1), 1338914.
- Quimette, P., Saxe, G., & van der Kolk, B. A. (1996). The Complex PTSD Interview. *Measurement of Stress, Trauma, and Adaptation*.
- Reid, J., Haskell, R., Dillahunt-Aspillaga, C., & Thor, J. (2013). Trauma bonding and interpersonal violence. *Psychology of trauma*.
- Sanchez, R. V., Speck, P. M., & Patrician, P. A. (2019). A concept analysis of trauma coercive bonding in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46*, 48–54.
- Saunders, D. G. (1991). Procedures for adjusting self-reports of violence for social desirability bia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6*(3), 336–344.
- Saunders, D. G., & Hanusa, D. (1986).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men who batter: The short-term effects of group therapy. *Journal of Family*

Violence, 1(4), 357-372.

- Schnurr, P. P., Lunney, C. A., & Sengupta, A. (2004). Risk factors for the development versus maintenance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Traumatic Stress: Official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17(2), 85-95.
- Silverman, J. G., Raj, A., Mucci, L. A., & Hathaway, J. E. (2001). Dating violence against adolescent girls and associated substance use, unhealthy weight control, sexual risk behavior, pregnancy, and suicidality. *Jama*, 286(5), 572-579.
- Speckhard, A., Tarabrina, N., Krasnov, V., & Mufel, N. (2005). Stockholm effects and psychological responses to captivity in hostages held by suicide terrorists. *Traumatology*, 11(2), 121-140.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Taylor, S., Asmundson, G. J., & Carleton, R. N. (2006). Simple versus complex PTSD: A cluster analytic investigatio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0(4), 459-472.
- Terr, L. C. (1992). Childhood traumas: An outline and overview. In M. E. Hertzig & E. A. Farber (Eds). *Annuals progress in child psychiatry and child development* (pp.165-186). New York. Brunner/Mazel.
- Van der Kolk, B. A., Roth, S., Pelcovitz, D., Sunday, S., & Spinazzola, J. (2005). Disorders of extreme stress: The empirical foundation of a complex adaptation to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Official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18(5), 389-399.
- Walker, L. E. (1979). The battered woman.
- Walker, L. E. (1983). Victimology and the psychological perspectives of battered women. *Victimology*.
- Wyatt, G. E., & Newcomb, M. D. (1990). Internal and external mediators of women's sexual abuse in childhoo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6), 758.

부 록

부록 1.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K-CTQ)

다음 질문지는 중학교 입학 전에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구성원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잘 읽고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아니 다	거의 아니 다	보통 이다	조금 그랬 다	항상 그랬 다
1. 어렸을 적 나는 늘 배가 고팠다.	1	2	3	4	5
2. 나는 돌봐 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1	2	3	4	5
3. 우리 가족은 나를 멍청이, 게으름뱅이, 바보, 병신이라고 놀렸다.	1	2	3	4	5
4. 우리 부모님은 술에 취해 있어서 나를 돌봐 줄 수 없었다.	1	2	3	4	5
5. 우리 식구 중에 내가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	1	2	3	4	5
6.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지저분한 옷을 입고 다녔다.	1	2	3	4	5
7. 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다.	1	2	3	4	5
8. 우리 부모님은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 말했다.	1	2	3	4	5
9. 가족 중 누군가에게 심하게 맞아 약국이나 병원에 간 적이 있다.	1	2	3	4	5
10. 가족 중 한사람이 나를 심하게 때려 상처가 나거나 멍든 적이 있다.	1	2	3	4	5

12. 우리 가족은 서로 잘 보살펴주었다.	1	2	3	4	5
13. 나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가슴 아픈 말을 한 가족이 있었다.	1	2	3	4	5
14. 나는 신체적으로 학대당한 적이 있다.	1	2	3	4	5
15. 선생님, 이웃사람, 친척이 알아 챌 정도로 심하게 맞은 적이 있다.	1	2	3	4	5
16. 우리 가족 중에 나를 미워한 사람이 있다.	1	2	3	4	5
17. 우리 가족은 모두 친하게 지냈다.	1	2	3	4	5
18. 누군가 나의 성기를 만지거나, 나에게 그들의 성기를 만지게 한 적이 있다.	1	2	3	4	5
19. 누군가 시키는 대로 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를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1	2	3	4	5
20. 누군가 나에게 성적인 행동을 하게 하거나 성적인 잡지, 비디오를 보게 하였다.	1	2	3	4	5
21. 누군가(이성이) 성적으로 치근덕거렸다.	1	2	3	4	5
22. 나는 정서적으로 학대당했다.	1	2	3	4	5
23. 내가 아플 때 우리 가족은 나를 의사에게 데려갔었다.	1	2	3	4	5
24. 나는 성적으로 학대당했다.	1	2	3	4	5
25. 우리 가족은 나에게 힘을 주었고 나를 지지해 주었다.	1	2	3	4	5

부록 2. 갈등척략척도(CTS2)

람이나 현재 교제중인 사람과의 데이트 과정에서 경험한 것들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해 주십시오.

내 연인은 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없음	가끔	보통	자주	매우 자주
1. 못마땅한 표정을 지은 적이 있다.	1	2	3	4	5
2. 짜증난 목소리로 화를 낸 적이 있다.	1	2	3	4	5
3. 욕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4. 고함을 지르거나 큰소리를 낸 적이 있다.	1	2	3	4	5
5. 침묵으로 저항한 적이 있다.	1	2	3	4	5
6. 화가 나서 발을 세게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은 적이 있다.	1	2	3	4	5
7. 일부러 술을 먹고 와서 주정을 부린 적이 있다.	1	2	3	4	5
8. 나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9. 나의 약점을 잡아 모욕한 적이 있다.	1	2	3	4	5
10. 내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 적이 있다.	1	2	3	4	5
11.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다.	1	2	3	4	5
12.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내게 던진 적이 있다.	1	2	3	4	5
13. 내 팔을 비틀거나 꼬집은 적이 있다.	1	2	3	4	5

15. 내 뺨을 때린 적이 있다.	1	2	3	4	5
16. 내게 발로 찬 적이 있다.	1	2	3	4	5
17.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으로 나를 때린 적이 있다.	1	2	3	4	5
18. 날 계속해서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1	2	3	4	5
19.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성행동을 조르거나 강렬히 요구한 적이 있다.	1	2	3	4	5
20. 성행동을 하기 위해 말로 위협한 적이 있다.	1	2	3	4	5
21. 성행동을 하기 위해 잡거나 누르는 등의 완력을 사용한 적이 있다.	1	2	3	4	5
22. 성행동을 하기 위해 나를 때리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으로 위협한 적이 있다.	1	2	3	4	5

부록 3. 스톡홀름 증후군 척도(SSS)

다음 질문지는 부모님 혹은 연인, 그리고 자신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는 문항들입니다. 1번 혹은 2번 질문지에서 응답한 한 분들은 각 질문에 해당하는 대상(부모님 혹은 연인)을 떠올리며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해 주십시오. 1, 2번 모두에 응답하신 분들은 지금 떠오르는 사람을 생각하며 체크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항상 그렇다
 1 2 3 4 5 6 7

문항	점수						
1. 내가 그에게 잘한다면, 그는 나에게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6	7

를 원하지 않는다.							
4.	나에게는 그가 분노를 제어할 수 없게 만드는 뭔가가 있다.	1	2	3	4	5	6 7
5.	그는 나만큼이나 피해자다.	1	2	3	4	5	6 7
6.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와의 관계가 건강한지 아닌 지에 대해 더 혼란스러워진다.	1	2	3	4	5	6 7
7.	나는 그가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는 단지 통제력을 상실한 것이다.	1	2	3	4	5	6 7
8.	문제는 그가 화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자극 한다는 것이다.	1	2	3	4	5	6 7
9.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1	2	3	4	5	6 7
10.	기분이 축 처지고 울적하다.	1	2	3	4	5	6 7
11.	나는 차분하고 나 자신에 대해 확신한다.	1	2	3	4	5	6 7
12.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은 좋은 일이다.	1	2	3	4	5	6 7
13.	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1	2	3	4	5	6 7
14.	나는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	2	3	4	5	6 7
15.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한 나의 느낌을 물으면 나는 모른다.	1	2	3	4	5	6 7
16.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난다.	1	2	3	4	5	6 7
17.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의 사랑을 가져야 한다.	1	2	3	4	5	6 7
18.	그가 없으면 나는 살 이유가 없다.	1	2	3	4	5	6 7
19.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의 보살핌과 보호가 필요하다.	1	2	3	4	5	6 7

21.	그의 사랑과 보호는 그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상처보다도 중요하다.	1	2	3	4	5	6	7
22.	우리의 관계가 깨지면 나는 너무 많은 고통을 느낄 것이고, 나는 죽고 싶을 것이다.	1	2	3	4	5	6	7
23.	내 눈에는 그가 신과 같다.	1	2	3	4	5	6	7

부록 4. ICD-11 외상 질문지(ICD-TQ Ver 1.4)

다음 질문지는 위 질문에 응답한 내용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지난 몇 달간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응답해주시시오.

질문	전혀 아니 다	거의 아니 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사건의 일부 또는 사건을 분명히 재현하는 꿈을 꾀다.	0	1	2	3	4
2. 지금 이 순간에 사건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는 강렬한 이미지나 기억들이 뇌리에 떠오른다.	0	1	2	3	4
3. 스트레스 받는 사건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내적인 것(예: 생각, 느낌, 신체적 감각)을 피한다.	0	1	2	3	4
4. 스트레스 받는 사건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외적인 것(예: 사람, 장소, 대화, 사물, 활동 또는 상황)을 피한다.	0	1	2	3	4
5. 나는 요즘 굉장히 경계하거나, 조심하고 있다.	0	1	2	3	4
6. 조마조마한 느낌을 느끼거나 혹은 쉽게 깜짝 놀란다.	0	1	2	3	4
7. 나는 다른 사람들은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은 것들에 격렬하게 반응한다.	0	1	2	3	4
8. 나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진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0	1	2	3	4
9. 내 감정은 쉽게 상처받는 경향이 있다.	0	1	2	3	4
10. 나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경험한다.	0	1	2	3	4

12.	나는 감각이 마비되거나 정서적으로 폐쇄된 느낌이 든다.	0	1	2	3	4
13.	나는 즐거움이나 기쁨을 느끼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0	1	2	3	4
14.	나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트라우마를 다시 떠오르게 하는 것에 직면했을 때, 종종 세상이 멀리 있거나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느낀다. (예: 시간이 느려지거나, 상황이 다르게 보임)	0	1	2	3	4
15.	나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트라우마를 다시 떠오르게 하는 것에 직면했을 때, 종종 내 몸 밖이나 안에 이상한 것이 있다고 느낀다.	0	1	2	3	4
16.	실패자가 된 기분이다.	0	1	2	3	4
17.	쓸모가 없어진 기분이다.	0	1	2	3	4
18.	말이 되든 안되든 종종 내 자신이 부끄럽다.	0	1	2	3	4
19.	내가 했거나 혹은 실패한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0	1	2	3	4
20.	나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단절된 느낌이 든다.	0	1	2	3	4
21.	나는 정서적으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0	1	2	3	4
22.	나는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 어렵거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결국 관계를 피한다.	0	1	2	3	4

부록 5. 사회적 바람직성(SDS-24)

다음 질문지는 여러분의 평상시 행동을 묻는 문항입니다. 잘 읽고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때로 자리에 없는 사람을 흥분적 이 있다.	1	2	3	4	5

3.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린 적이 있다.	1	2	3	4	5
4.	남의 도움을 얻기 위해 거짓말이나 마음 없는 말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5.	손님이 그만 가주기를 바라면서도 붙잡는 척 한 경우가 있다.	1	2	3	4	5
6.	누가 나에게 일을 시키면 바쁜 척 할 때가 있다.	1	2	3	4	5
7.	상대로부터 대접을 받고 싶어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할 때가 있다.	1	2	3	4	5
8.	속으로는 자랑하고 싶지만 겉으로는 겸손하게 행동한다.	1	2	3	4	5